

생화소

66호



누가 무엇을 발명했을까?

모든 발명은, 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고생과 노력과 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발명가 에디슨이, "훌륭한 발명이란, 1%의 아이디어까지는 노력으로써 이루어진다" 라고 말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말입니다. 이와 동시에, 발명이 생긴다는 것은, 세계가 그만큼 진보되었다는 것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의 사람의 연구를 물려받아, 나중 사람이, 또한 더 후세(後世) 사람이, 이러한 순서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오늘날 우리같이 보는 것과 같은 찬란한 과학문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발명한 물건	발명한 사람	나라 이름	연대 (年代)	기	작	스	의	이	본	성	국	연대			
인쇄술	구우렌베르거	독일	1463	아	아	크	공	리	베	리	영국	1831			
회중시계	벤다린	독일	1505	지	벤	드	아	스	부	질	영국	1824			
현미경	안센	호르헨드	1590	전	실	기	모	르	루	스	아메리카	1827			
망원경	제리베오	이탈리아	1609	제	본	들	라	우			아메리카	1836			
백식계	로이헨스	호르헨드	1657	추	진	지(蓄電池)	주	란	데	부	랑	스	1858		
항난계	콰이텐라이오	독일	1724	애	리	베	라	아	노	노	제	스	아메리카	1861	
피피침	주벨크린	아메리카	1732	타	이	나	마	이	르	노	노	제	스	아메리카	1864
승기기관	왕드	영국	1769	제	투	포	이	드	라	이	샷	드	아메리카	1869	
방직기계	아이크라이프	영국	1767	전	화	제	주					아메리카	1875		
청날	이리이너	오오스드리아	1771	유	성	기	에	리	슨			아메리카	1877		
자전거	부랑가야드	부랑스	1779	전	공	제	리	슨				아메리카	1879		
전기	가투비아니	이탈리아	1780	전	차	시	리	벤	스			독일	1881		
우두	벤나아	영국	1795	자	동	화	타	이	부	라	아	독일	1882		
짜스물	마아독크	영국	1788	활	동	사	제					아메리카	1885		
전기	보두다	이탈리아	1800	무	선	전	선 (磁石)	말	모	너	이	이탈리아	1896		
거울	주부돈	아메리카	1807	비	행	기	라	이	드			아메리카	1903		
사진	나이피스	부랑스	1814	프	너	지	필	주	데	밍	그	영국	1837		



소학생

4282년 4월 1일 발행

66 호 4 월 치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부이달의 메모자

- 4월4일...계정 선착곡서 1932년 정 물 주 세상을 떠남.
- 4월5일...청명 (淸明)
- 4월6일...한식 (寒食)
- 4월8일...석가탄생일 (釋迦誕生日)
- 4월13일...1912년 임진왜란이 일어남.
- 4월20일...폭우 (靦雨)
- 4월23일...세계적 지인 쉼스피어가 영국에서 1664년 낳았으며 1616년 같은날 세상을 떠남.
- 4월27일...무선전선의 발명가 모오루스가 1791년 아메리카에서 낳음.
- 4월28일...해조 (海潮 12년) 1467년 원 작사 13층탑 이루어지다.



☆ 차 례 ☆

- 동요·봄 파 저 울.....유 달영 (17)
- 동요·전 달 래.....이 원수 (6)
- 유변동화·나 그 바.....정 비희 (27)
- 동화·봄 파 어린 이.....최 병희 (32)
- 소설·하 안 곡 매.....성 인택 (14)
- 소설·하랑개월(인인합).....괴 원탁 (4)
- 아동극·달밤.....진 우촌(34)
- ☆그림동화·괴노치오.....박은환 (44)
- ☆즐거움을어떻게.....박동희 (10)
- ☆해부산이야기.....홍동진 (23)

- 과학요약보기.....반영중 (40)
- ☆해는동쪽에서뜨는것일까?.....최병관 (26)
- 아협상타기.....(22)
- 동요작문모집.....(22)
- 그림해기·인행명성.....정 국 (28)
- 무엇이필요할까?.....(40)
- 소와생각.....(48)
- 표상식.....(21)
- 외계행성.....(9)
- 에드워드어림상하기문제.....(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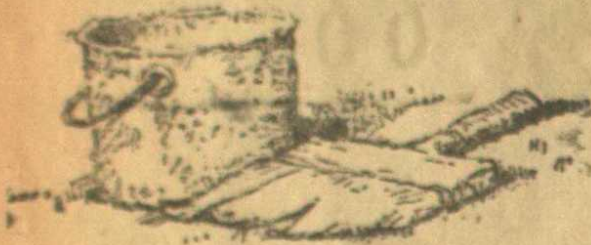
- ☆우리의 학교 기록 ☆
- 서울침례학교.....(42)

- 우리 나라 공부.....(39)
- 만화·카툰이.....김이환 (25)
- 누가무엇을알고있나?.....(3)
- 만화·그림.....(31) 스텝필터사.....(37)
- 소학생구락부.....(50)
- 만화고나히.....(80)

☆그림 그리신 분 ☆
정 현용·김 이환·한 흥덕
임 동은·조 병희·최 수업
김정·정 현용

하양계 칠해진

판장



피 천득 번역

이 이야기는 믹 투웨인이라는 미국 소설가가 지은 “틀 소오야의 모험”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믹 투웨인의 원 이름은, 살렘 크래멘스 (Salem Oremus, 1835~1900)라고 합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은 위에 말한 “틀 소오야의 모험”과 그 후편인 “윈클베러 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소설이 모두 믹 투웨인 자신이 자기 소년시대에 몸소 지어 본 경험을 재료가 해서 쓴 작품입니다.

토요일날 아침이 왔습니다. 여
름 세지는 어더나 밝고 새롭고
생명의 기운이 넘쳤습니다. 누구
의 가슴에나 노래가 샘솟고, 그
가슴이 풀으면 노래가 일파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일글마다 우습
이 있고 걸음거리는 가벼웠습니
다. 아카시아 나무에는 꽃이 피
고 그 향기는 공기 속에 가득 찼
습니다. 마을 건너 저 편에 솟아
있는 카야다르산은 푸물데도 푸
르고, 멀리 떨어져 보이는 그 자
락이 마치 꿈 꾸는듯 초는듯, 그
리고 어찌로 오라는 듯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 옛날 책에 나오는
낙월 같이 보이었습니다.

틀은 하얀 칠가무 물을 담은 파
페스와 손잡어가 걸 부라쉬(술)를
가지고 길가에 나타났습니다. 틀
은 판장을 끝까지 한번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 때 틀의 모든 기
쁨은 모조리 사라지고 가슴이 답
답해졌습니다. 높이가 9피트(1
피트=0.30473m)나 되는 널판대
기 판장이, 3)야드 (1야드=0.9

1438m)는 되었습니다. 틀은 세
상에 실증이 나고 사는 것이 무
거운 결을 인 것 같았습니다. 한
숨을 쉬면서 틀은 부라쉬를 석회
물에 담뭍 담겨 가지고, 판장 맨
꼭대기를 죽 한번 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되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조금밖에 안되는 칠해진 부분
과, 칠하지 아니한 대륙(大陸)같
이 넓은 판장을 비교해 보고는,
그만 맥이 풀려서 나무등 위에
추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때 틀이
딱게쓰를 들고 “비과르아가씨”라
는 노래를 부르면서 문 앞에 뛰
어 나왔습니다. 한걸 쟁주에서
물을 길어온다는 것은, 틀에게는
언제나 대단히 싫은 일이었습니
다. 그러나 지금 생각으로는 그
렇지도 않았습니다. 한걸 쟁주에
는 늘 등무들이 있었었습니다. 거
기에는 늘 백인(白人)아이, 백인
과 흑인의 토기아이, 밤둥이 아이
들이, 저희를 물 거를 차례를 기다
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쉬기도

하고, 바꿈질도 하고 장난도 쳐
고 다루기들도 하고 싸움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떠들기도 하였습
니다. 쟁주 수통이 1.50야드밖에
안떨어져 있지만, 틀은 언제나 한
석갈 안에는 물을 길어 오는 법
이 없었고, 그것도 대개는 누구가
부르러 가야져 된다는 것을 틀은
생각하였습니다. 틀은 틀을 보고
“애 너 이것좀 칠해주면 내 물
걸어다 주지.”

하였습니다. 틀은 실다고 고개
를 흔들면서 하는 말이,

“안된다. 틀아. 주인 아주머
니가 길에서 누구하구 장난말
고 빨리 물걸어 가지고 오렷만
다. 틀이 칠물 칠하는 것 도와
달라구 해도, 도와주지 말고 나
탈 일만 하라고 그러더라. 그러
고 있다가 너 칠하는 것 보며
온다더라.”

“무어 걱정마라. 늘 아주머니
하는 소리란다. 타게쓰 어찌
다오. 내 일분도 안걸릴테니.
아주머니가 알게 뭐냐.”

“싫다 틀. 주인 아주머니한테
걸리면 정치게,”

“아주머니가! 아주머니는 아
무도 때리는 법이 없다. 쟁주
걸 손가락으로 머리 위를 똑똑
두드려 주지마는, 그까짓 것
누가 겁내니. 아주머니는 말도
는 무섭게 굴지만, 말쑥이야 아
프지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주머니가 울고 야단만 안하
면 괜찮다. 틀아 내 좋은 구
슬하나 주제. 하얀 큰 구슬이
야.”

틀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
였습니다.

“자아! 이 큰 구슬좀 봐라,
겉아 아주 굉장한거다.”

“아 그것 참 좋다. 그때 그럴
지만 나는 주인아주머니가 무
서워 죽겠다.”

“그러고 네가 좀 철대 들다면
내 아픈 발자국을 구경시켜 주
라.”

그러나 켄도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임은 켄이 막아내기에는 버
무나 힘이 없습니다. 그는 불통
을 배려 놓고 큰 구슬을 받았습
니다. 그러고 돌이 제 발에 잡은
봉매를 주는 동안, 호기심을 가
지고 재미스런게 물어다 보고 있
었습니다. 어느 틈에 프리 아주머
니 목소리가 저쪽에서 들리 왔습
니다. 켄은 불통을 잡아 쥐기가
바르게 공문을 딱 붙들고 도
망을 쳤습니다. 돌은 아주 열
심으로 회절을 하였습니다. 아
주머니는 빛은 스윽과 한쪽을
손에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
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돌
의 열심은 계속되지 못하였습
니다. 돌은 오늘 재미나게 놀
려고 궁리했던 여러 가지 재
미있는 장난을 다시 생각할 때
슬픔은 한층 더 하였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아무 일도 안해
도 좋은 자유로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장난을 하
러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들은 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려먹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돌은 가슴
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돌은 자기 재산을 호주머니에
서 전부 꺼내서 세어 보았습
니다. 못쓰는 동전, 구슬 같은 장
난감이 몇개, 그리고 이것 저

것 너절한 것들……아마 이것들
을 주면 겨우 일을 바꾸어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완
전한 자유란 겨우 반시간 동안도
사기 힘들만큼, 그의 전 재산은
머뭇이 없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난한 재산을 호주머
니 속에다 모조 넣고, 다른 아이
들의 풍을 사볼 생각을 버렸습
니다.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어떻
게 하여야 좋을지 모를 순간에,
갑자기 굉장한 생각이 머리에 머
울랐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모
험이었습니다.

돌은 부라퀴를 들고 마음을 가
다알리 침착하게 일을 시작하였습
니다. 얼마 안있어 켄 프자스가
길 가에 나타났습니다. 돌이 누

구보다도 제일 놀림받기를 두려
워한 것은, 바로 이 켄이었습
니다. 그는 광충거리며 뛰어 나왔
습니다……마음이 유쾌하고 무
슨 좋은 일을 기다리는 것 같았
습니다.

켄은 사파를 한 개 입에 물고
덕으며, 이따금 우웅 소리를 내
고 여어서 굼은 목소리로, 풍—
풍—풍—풍—풍—소리를 내
면서 읊니다. 재떨이는 거신이 된
모양입니다. 켄은 이쪽으로 가자
이 울쭈룩 차차 속력을 늦추고,
길 한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
리고는 바른 편쪽으로 몸을 굽
기울이고, 욕중한 뜻이 그리고
합어 드는 뜻이 야만스럽게 뱉어
피를 들었습니다. 켄은 대 (大)



진 달 래

이 원 수

진달래 피었구나 눈녹은 산에
 붉은꽃 여기 저기 불같이 타네,
 겨우내 애라지도 기다리던 봄
 새옷을 갈아입고 산으로 가자.

진달래 피었구나 울르는 산에
 붉은꽃 여기 저기 반가히 웃네,
 찬바람 눈서리 물러간 봄을
 동무야 진달래핀 산으로 가자.

진달래 하늘 하늘 붉은 꽃잎에
 얼굴을 대어볼까 그리운 동무
 이른봄 산바람은 으스스 차도
 진달래 남면저 잘도 피었다.



그림 · 한 흥 렵

미즈리호(號)가 된 셈입니다.
 배 밑바닥 깊이가 9피트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은 혼자서 기선과 선장과 그리고 또 기관실의 신호종까지 경했습니다.

그래서 벤은 벤 위 갑판에 서서 선장이 하는 명령도 하고, 또 동시에 그 명령대로 배가 움직이는 노릇도 해야 되었습니다.

“스름!……… 멍멍!”

배는 앞으로 나가는 힘이 부족하여 들고, 조금씩 걸 가 보도(步道)로 가까이 다가 왔습니다.

“뒤로 물러 멍멍!”

벤은 두 팔을 꼭 뻗더니, 힘을 주어서 좌우 옆으로도 내렸습니다.

“우현(右舷…배 오른쪽)뒤로 물러!”

“멍멍 멍 멍— 멍— 멍—”

그러면서 벤의 오른 손은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끌었습니다. 동그라미는 직경(直徑) 4피트나 되는 바퀴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좌현(배 왼쪽)뒤로 물러.”

“멍멍 멍 멍— 멍— 멍—”

왼편 손이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현(右舷)스름 멍멍 멍 멍— 멍— 멍—”

“좌현(左舷)스름! 우현 전진(前進)! 스름 외현(外舷)전진히 돌아! 멍멍 멍 멍— 멍 멍히 줄을 꺼내라. 힘차게 자! 낚줄을 꺼내라. 무일 금지라기라고 있네. 저 말뚝이나 뭐 낚줄과 터를 던져 걸러라. 줄을 노아 버려라. 관교(槓橋)에 조심

해다. 기관 스름 멩멍멍”

“셋! 셋! 셋! 험수기(驗水器)를 검사하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벤이 야단 법석을 하는 데도, 툼은 물론척 하고 여전히 하얀 칫물칠하는 것을 계속하였습니다.

기전은 본 척도 아니하였습니다.

벤은 잠깐 들여다 보고 싶다가 하는 말이,

“어어 너 녹았고나 야!”

대답이 없습니다. 툼은 지금 막 칠한 것을 미술가가 제 그림을 들여다 보는 듯한 눈으로 한참 동안 들여다 봅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부라쉬도 가볍게 스치고는 그 칠한 결과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벤은 옆에 가까이 와서 나란히 섰습니다. 툼은 사과가 먹고 싶어서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만 계속하였습니다.

“어 너 일해야 되는구나?” 하고 벤이 말을 겁니다. 툼은 갑자기 돌아 보면서,

“무어! 너 벤이구나. 난 또 물랐지.”

“애 난 헤엄치러 가는 걸이야. 너 자고싶지 안니? 허지만 너 일하는 것이 좋겠지. 그렇지? 그야 물론 일하는게 더 좋겠지!”

툼은 벤을 잠깐 쳐다 보고는, “너 이걸 일이라고 그러니?”

“너 지금 하고있는 것이 일이 아니고 뭐야?”

툼은 다시 하얀 칫물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것말이야?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 어떻게든 나 알기에는 이 일이 꼭 툼 소오야에게 알맞는 것이란 말이야.”

“뭐야 애. 그래 너 그것을 좋아한단말이야?”

칫물칠은 그대로 합니다.

“좋아 하느냐고? 왜 좋아해서 안되니? 우리 같은 아이들에게 관장에 칫물칠하는 일이 그렇게 매일 있을줄 아니?”

벤이 그 말을 듣고 보니, 칠하는 것이 갑자기 나르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벤은 사과 썬는 것을 그쳤습니다.

툼은 뿔뿔이 부르쉬도 이따저러 칫칠해 나갑니다. 그러고는 뒤로 물러 서서 그것을 죽 한 번 훑어 보고는, 여기 저기 조금씩 부르쉬를 슬쩍슬쩍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그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벤은 툼이 하는 것을 하나 하나 유심히 바라볼수록 점점 재미가 들어서, 아주 그것에 정신이 팔려버렸습니다. 마침내 벤이 하는 말이,

“애 툼아. 나 조금만 칠해보자.”



들은 좀 생각해 봅시다. 거의
 승낙을 할만 하였읍니다. 그러나
 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싫어. 안돼. 그렇게 할 수 없
 어. 펜야. 너 우리 포리 아주
 머니가 이 환절에 있는 관장에
 매혹된 특별히 유난스럽단다.
 저 빛물부 관장이라면 나도 견
 찰구 아주머니도 아주 말도 아
 니할려지만, 정말 우리 아주머
 니는 이 관장에 매혹되는 야망

이야.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서
 해야지 왜. 이 관장을 제대로
 질할 수 있는 아이는 천에 하
 나나 이천에 하나도 없을거
 야.”
 “응 그래? 그러나 자 나 좀 해
 보자구나. 아주 조금이라도 좋
 아. 내가 너 같으면 좀 해보라
 고 말했네...해 돌아.”
 “펜. 난 정말 너보고 철해보라
 고 하고 싶지만, 포리 아주머

니가 말이야, 펜이 하고 싶어 되
 도 안시켰어. 찌드도 하겠다고
 했는데 안시켰어. 그만하면 나
 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겠지. 네가 멋모르고 덤벼들
 었다가 일어나 저지르려고!”
 “이건 갈지않게. 내 조심해서
 할게 나 좀 해보자. 내 사과 주
 줄테니.”
 “그러면 자...아니 아니야 제
 말 그러지 말아 펜야. 난 마음
 이 안노인다.”

“이 사과 다 줄게!”

톨은 마음으로는 열지구나 하더라도, 마지못한 얼굴을 하면서 부라퀴를 벤에게 주었습니다. 어리하여 아까까지 대(大) 머조리 호(號) 선장이었던 벤은, 더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일한다는 풍한, 몸 편하게 된 미술가는 그 바로 옆에 나무 그늘 아래 있는 나무통 위에 올라 앉아, 다리를 흔들거리며 사과를 먹으면서, 다른 순진한 아이들을 끌러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차례차례 연달아 나왔습니다. 모두 놀려 먹으러 왔다가 찢물 찢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벤이 지쳐버린 뒤에는, 톨은 잔 날개 바로 잡아는 연 잔개를 받고 버디피샤에게 다음번 칠해보는 차례를 팔았습니다.

그 아이가 또 지쳐 빠졌을 때는, 존니이미라가 죽은 생쥐와 그것을 묶어서 휘두르는 끈을 주고, 다음번 찢물칠할 차례를 샀습니다. 어떻게 몇시간 동안을 지내 오우가 좀 지났을 때에는, 아침의 불쌍한 가난뱅이 톨은 참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물건들 외에, 구슬 열두개, 입에 대고 소리내는 구름(口琴) 하나, 눈에 대고 내다보는 파란 유리 조각, 고무총 한 개, 아무 것도 열 수 없는 낡은 열쇠 하나, 백덕트만 하나, 술병 유리마개 하나, 생철 병정 하나, 오리 두 마리, 호모독이 여섯개, 의눈박이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주석으로 만든 방문 손잡이 하나, 개 목걸이 하나, 칼자루 하나, 꿀 접질

네개, 떨어진 유리창 모사리 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톨은 그 동안 관장엔 손가락하나 대지않고, 동무들과 같이유쾌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여러 가지 꽃★

—뒤 결장 설명—

식물 가운데 아름다운 빛과 화려하고 기묘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 꽃일 것입니다. 이 꽃들은 모두 서로 틀리는 모양과 크기, 또는 가지 각색의 빛을 가지고 있지요. 야마에 있는 것과 같은 꽃 들레가 13피 이트나 되는 큰 꽃이 있는가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 힘들만큼 눈여겨 보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그렇게 작은 이름 모를 풀꽃들도 많습니다. 떠엄떠엄 떨어져 꽃 하나가 나무가 되어 자라는 것도 있고, 한 종류의 꽃이 때를 지어 큰 숲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고, 한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많은 꽃이 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아침이면 폼다 저녁이면 지는 나팔꽃, 또는 저녁때를 알리는 분꽃 등, 피고 피고 또 피고, 꽃이 지면 다음 봄오리가 새로 피곤 하는 우리 나라 국화(國花) 무궁화도 있지요.

꽃에는 모두 종류에 따라서 수효가 틀리는 꽃잎과 같은 수효의 꽃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술 끝에는 분가루 같은 화분(花粉)이 있어, 나비나 또는 다른 벌레들로써, 혹은 바람으로 묻히어 가고 날아가, 자기 꽃들의 씨(種子)를 보존합니다. 꽃에는 또한 두 가지종류가 있습니다. 그대로 봄이나 가을에 꽃피어 천지를 장식하는 꽃과, 꽃이 진 후 열매를 맺어 우리들의 중요한 식물(食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밀꽃은 조그맣고 그리 화려한 꽃은 아니지만, 이 꽃이 지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부터 우리는 밀가루를 만들고 빵을 만들어, 쌀과 같이 일상생활에 먹고 있는

중에 관장엔 찢칠이 세 겹이나 칠해졌습니다. 아마 찢가루 물이 더 남아 있었더라면, 그 뭉게 사는 아이들은 모조리 톨에게 파산(破産)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토마토는 노랗고 별 모양의 꽃이 진 후 열매가 자라, 여름 한철 맛있고도 신선한 과실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물론 수박 사과, 모든 과실 열매가 다 처음에는 꽃입니다. 이와 반대로, 열매가 안열고, 씨가 만들어지는 꽃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꽃이 지면 이 씨를 받아 두었다, 봄이 되면 또 땅에 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는 꽃과, 씨를 만드는 꽃, 즉 그러한 식물(植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씨를 받아서 심는 것 외에, 바람이 저절로 씨를 날리어 자연적으로 차손을 퍼뜨리는 문물레도 있고, 땅 속의 뿌리가 구근(球根)같이 되어, 그것을 두었다 심는 꽃나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우릴 백합꽃 등입니다. 레디이 스텝퍼라는 꽃은, 석양선 봄에 숲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피어 눈에 띄우는 꽃입니다. 여러 분! 백합꽃이 고상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모두 아시지요. 그러나 호파(玉葱)꽃이 백합 모양을 한 것을 아십니까? 호파에도 꽃이 있는 것입니다. 이 꽃은 조그마한 백합꽃 같이 보이며, 이것 역시 땅속에서 꽤 큰 구근(球根)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꽃”이라 하면, 대개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장식이나 아름다움으로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꽃, 즉 장미꽃, 작약꽃, 모란꽃, 오랑캐꽃, 난초, 진달래, 국화꽃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다음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열매나 씨는 꽃으로부터 생기고, 그러니까, 씨도, 배추도, 무도, 오이도, 모두 처음엔 꽃이 피고, 이 것이 저서 그렇게 훌륭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발명 이야기

중기선은 어떻게 발명되었나

박동식

여기는 아메리카 펜실바니아주 탕가스타아라는 조그마한 마을, 때는 별이 따뜻한 늦은 봄 5월 어느날 환가한 낮입니다. 강가 나무 그늘 밑에 칠색이 좋은 귀여운 한 소년이, 마침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때마침 나비 한마리가 나폴나폴 소년의 어깨에 앉았다간, 평화로운 꿈을 깨지 않으리라 생각함인지, 그때도 툭툭 강물을 건너 날아갔습니다. 정말로 평화롭고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고기잡는 소년의 꿈

얼마 안되어 이 조용한 공기를 울고 명랑한 소년들의 재갈거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쪽에서 두서너 명의 소년들이 낚싯대를 제각기 들고 나타났습니다.

“애! 후두튼아. 너 고기 많이 잡았니? 애! 후두튼아……어쩔쇼. 이런 낮잠을 자다니…”
“잠잠 기다려라. 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니……”

옆에 섰던 다른 장난꾸러기 소년이 이렇게 말하며, 걸가에 우거진 줄을 토포기 틀어, 자고 있는 소년의 뒷속에다 걸어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자고 있던 소년은 재채기를 두어번 하여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이 꼴을 본 여러 소년들은 모두들 허리를 못

필 지경으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이윽고 웃음을 진정한 소년 하나이,

“그런데 후두튼군, 그래 몇마리나 잡혔나? 뭐? 한마리도 못잡혔다구? 그래서 낮잠을 잤군그래.”

“그렇긴 하지만……그래두 난 뭐 그냥 낮잠을 잔 것은 아니다. 아주 굉장한 꿈, 응 그렇지! 아주 이 세상에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굉장한 꿈을 꾸고 있었어. 너희들이 깨우지만 앉았더라면, 그 재수를 볼 수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후두튼이란 소년은 자못 아깝다는 듯이, 그들 소년들 원망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것 참 안됐구나. 그러나 나쁜 마음으로 장난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라. 그런데 매제 그 굉장하고 재밌는 꿈이란 무엇이냐? 애 우리들한테도 좀 들려 주려두나 응!”

“그때, 그렇게 듣고 싶다면 들려 주지. 정말은말야, 고기가 당채 잡혀야지. 그때 속이 상해서 모래밭에 밀떡 드러누워서 하늘의 흰 구름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지. 그런데 아마 어느 물에 잠이 든 모양인가와……나는 어느 큰 강가에 서 있었지. 그런데 이제, 웬일인지



사진은 후두튼

아주 멀리 강 저쪽으로부터, 시꺼먼 연기를 토하며 큰 배 한 척이 무서운 속력을 높으며 아리로 달터 오고 있지 않겠어. 여봐, 저 타아리 아저씨네 걸 굴죽있지 않아? 그렇게 생긴 굴죽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나중에는 구역꾸역 나오지 않겠느냐말야. 그리고 배 옆에서는 물방아(水車) 모양 같은 것이 빙글 빙글 돌고 있겠지. 백사 공들은 조금도 노를 짓지 않고 있는데, 그때의 따르기란 미랄베가 없랄말야. 나는 하프신기하고 기해서 그만 소리를 질러 민생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너희들이 깨술기야. 참 아파했어. 나는 그 배를 타고 속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하 하 하! 에 그것은말야, 옛날 이야기애나 나오는 배란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자아 우대 이제 다 같이 콘군을 불러다 술바부절이나 하자구나.”

이리하여 소년들은 모두 기쁘게 웃으며 콘을 부르러 갔읍니다.

이 꿈을 꾴 트비아트·후루톤은, 고기잡기를 무엇보다도 즐기는 소년으로, 거의 날마다 강가에 나가선 고기잡기에 열중하엿읍니다. 이 밤에 또 하나, 후루톤이 천히 노는 등무들과 다른 짐은, 림만 있으면 대장장이 쵸오너이 아저씨한테 가서, 무엇이든 낚는 못쓰는 금속(金屬) 부스러기를 얻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방안이 작 차도록 쇠 부스러기, 구리알, 못이나 철사 등을 모아 두는 것이었읍니다. 아버지에게 아무리 꾸중을 들어도, 이것만은 버릴 생각이 없었읍니다. 그러고 또 하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즐기는 것은,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일을 몽상(空想)하여, 비록 물건은 나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합하여 만드는,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과학장난감을 만드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고기를 잡고 있을 때도, 마음은 어느결에 배를 꿈꾸고, 어떻게 하면 노를 짓지 않고 기계도 움직이는 배를 만들 수 있나 하고 궁리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만든 것과 같이, 이상한 배를 꿈꾸는 것이지만, 실로 여러 분이 오늘날 그림이나 설계도 보시는 기린이나 배의 꿈을 실현(實

現) 하기까지는, 20 수년의 경험과 연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화가인 후루톤

그는 어렸서부터 사람의 얼굴 그리기를 즐겼읍니다. 그래서 화가가 되려고 고향인 탕카스타아를 뒤로 푸라델피아로 떠났읍니다. 그는 거기서 초상화(肖像畫...사람의 얼굴을 그린 그림)를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가 되려고 일거리를 찾았으나, 후루톤이 젊었기 때문인지, 또는 무엇이든 할 줄 아는 재주꾼이었던 관계인지, 아무튼 그는 마을을 가라앉혀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마음 내키는대로 기계 설계, 또는 주택(住宅...집) 설계도 하엿읍니다. 도 어느 때는, 야는 운송점(運送店)주인의 부탁을 맡아 칩 설계까지 한 적도 있읍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력(精力)이나 건강은 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일을 하여 그만 병이 들어, 온천에 가서 몸을 정양(靜養)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 이 온천에 와있던 한 신사에게서, 영국과 푸랑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원래가 환동기인, 그러고 해외(海外)로 진출(進出)할 희망을 가진 후루톤인지라, 이 말을 듣고 난 뒤부터는 앉일부질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이 웬만큼 낫자 여비(旅費)를 마련해 가지고, 그리운 고향과 어머니와 누이를 등지고, 용감히 영국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얼마 안있어 초상화를 부탁받은 부러져워어더어공

작(公爵)과 친밀한 동무가 되었읍니다. 이 공작은 아직 손도 안대인 경장히 훌륭한 광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아, 이 광석을 파내너 그것을 나를 수가 있어 야지요. 그래서 공작은, 후루톤이 영국에 오기 수년 전부터 많은 운하(運河)를 파서 광석을 나를 수로(水路)를 만들었읍니다. 그 때 마침 후루톤이 온 것입니다. 공작은 후루톤에게 부탁하여 수로에 쓸 배와, 이 배를 기계로 움직이게 할 방법등을 연구하도록 청했읍니다. 화가에게 배를 만드는 방법과 기타 기계설치 등을 부탁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승기우나, 사실은 먼저 후루톤이 만든 배의 모형(模型)을 보고, 그가 발명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까닭입니다.

이것이 동기(動機)가 되어, 후루톤은 화가로부터 기술자(技術者)로 직업을 바꾸었읍니다. 먼저 그는 첫서작으로 시험삼아 특별한 배를 설계도 하고, 운하용으로 배를 운였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장치연구도 하엿읍니다. 이와 같이 후루톤은, 예술가로서의 풍부한 상상력(想像力)을 가져왔을 뿐더러, 한편 그러한 상상을 실제의 한 물건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발명가이기도 하엿읍니다.

그 후 후루톤은, 푸랑쓰로 건너가 정부(政府)의 부탁으로 수뢰정(水雷艇)을 발명하엿으나,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도 보리어 그 때에 있어선 적국(敵國)이었던 영국이 사제 되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그는 다시 영국으로

로 갔습니다. 세월이란 참으로 빠른 것입니다. 그가 모국(母國)을 떠난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두톤 머피에게는, 지나간 소년 시절에 냇가에서 꿈꾼 이상한 배,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아아 그렇다! 내가 그 동안 무엇을 했나. 다시 한번 소년 시절의 꿈으로 돌아가자. 20년 동안 외국에서 배운 경험과 재식을 밑삼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고 드문 배를 만들자.”

이 같이 생각하자, 그는 갑작스레 모양이 그림기 간결하여, 왓트가 발명한 증기기관(蒸氣機關)을 영국서 사가지고, 부랴부랴 아메리카로 돌아 왔습니다.

증기선 크라아몬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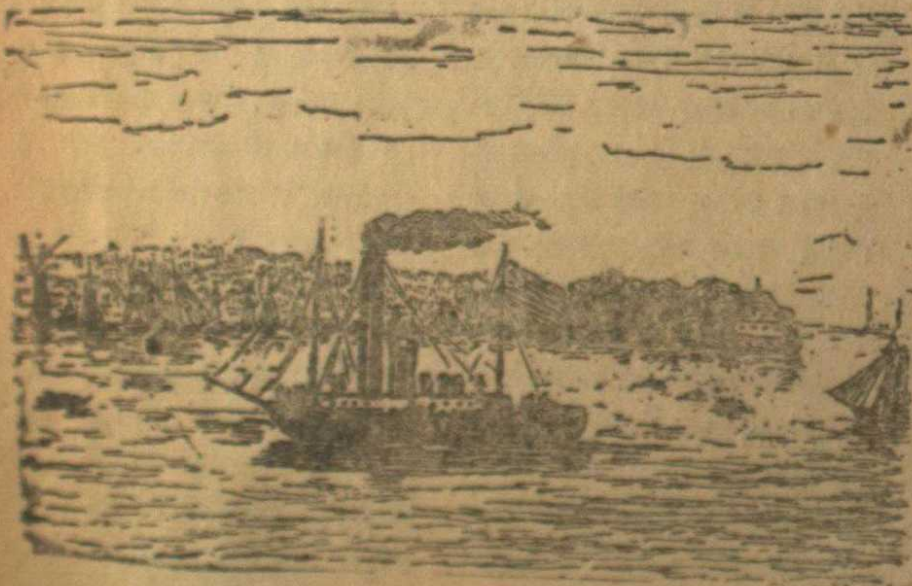
여로부터 그는 밤을 낮으로 전력 기울여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1807년 7월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의 길이는 42미터가 넘고, 넓이가 4미터 반,

배 양쪽에는 물을 헤치는 구루마 볼 달고, 이것을 움직이는 20마력의 작은 기관(機關)이 붙어 있고, 이름을 크라아몬트호라 지었습니다. 이리하여 맑게 개인 어느 날 많은 손님들 대운 크라아몬트호는, 처음으로 하드슨강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 날이 바로 1807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이 날의 감격과 기쁨의 모양을, 후두톤은 자세히 적어 동무에게 기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아 이제 출발이다 하는데, 친구들은 모두 갑판 위에 죽 늘어 서서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두려움과 또 신기함에 침착을 잃고 덜렁거리고 있다. 그 중에는 잠자코 “제발 실패로 돌아 가지 말기를……” 하고 생각하는 듯,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나의 노력과 고생이 이 날 완성이 성공되기를 빌어 주는 그 심정에, 나는 감사의 마음과 기쁨으로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신호와 함께 배는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스르르 배는 달리기를 시작하여, “아 이제는……!” 하고 기뻐하였으나, 그것도 잠시 뿐, 들린 고동이 멈추고 배는 그대로 물 위에 천체 움직이지 않는다. 아아! 정말 큰 일이다. 손님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일시에 서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소리도 지르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어깨를 으쓱거리기도 하며 야단들이다. 나는 그 속에서 다음 같은 말을 들었다. “그것 봐라 내가 뭐했어. 이런 뜻없는 증기선이라니 어리석기도 하지. 미친 사람의 짓이기에 성한 사람야! 우리들이 이 배를 탄 것이 불행이란 말일세.” 이 말을 듣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두 손을 붙잡고 기판실에서 머리를 쳐받고 외쳤다. “어머 분!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아직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설계하고 만든 배니까, 반드시 원인을 찾겠습니다. 아무튼 30분만 참아 주십시오.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머 분께서 무어라고 꾸짖고 욕을 하셔도 그 벌을 받겠습니다.”

갑판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위축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다시 기판실로 들어가, 그중의 이곳 저곳을 세밀(細密)히 조사한 결과, 대단히 간단한 고장을 발견했다. 나는 즉시 이것을 고치니, 이제껏 까딱하고 일어보지 않았던 배는, 또다시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도 쉬지 않고 불꽃



을 해치며 힘차게 달린다.

그러나 이같이 정확하게 뛰는 나아간점만, 아직도, 아니 눈 앞에서 땀이 보면서도 땀이 증기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사실 귀를 잡아다리며 이것이 꿈이 아닌가 시험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놀랍다. 아아! 나는 기겁다! 정말 하늘이라도 우뚝 솟아 무한한 기쁨에 몸을 떨었다. 모든 것이 순조(順調)롭게 움직인다. 차차 차차 변하여 가는 양쪽 강기슭의 경사를 바라다 볼 때, 나는 이제껏 당하고 느꼈 스라릴 그들과 파근을 모두 맛볼 수 있었다.

처음으로 성공을 자문 크리악(크리악)으로, 아주 간단한 구조(構造)로, 오늘날 보시는 기선(汽船)에 비한다면, 마치 장난감입니다. 몇몇의 팔 일부에 달린 달았을 뿐, 그들 뒤에 쓰그한 운전대와 만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다 배의 조종(操縱) 아주 기절어, 좌우좌우, 달경 경 소리가 심했음으로, 근황을 나는 다른 배의 선장들은, 증기에 고장이 난 것이나 아닌가고, 친절하게도 일부러 자잡게 일러주기도 하고 걱정도 하곤 합니다. 또 이 배를 강기슭에 바라본 사람들 가운데는, 여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증기선을 처음 보았을 때는, 밀이 평평한 배에다, 솟고 온 몸을 싣고, 언방 점은 연기를 뿜으며 솟을 고는줄 알았다

배."

라고도 말하고, 또 이 배가 밤중에 달리는 것을 본 사람은, "마치 바다의 파물이 불과 연기를 뿜으며 움직이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라고도 말했다 합니다. 사실 이 증기선은 파물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연료(燃料)가 석탄이 아니라 장작이고

또, 화부(火夫)가 불을 해치면 불명이자 급류(急流)같이 줄줄에서 뿜어 나왔으니까지요, 선원(船員)들의 얼굴은 금세 꺼멓게 되어, 배를 탄지 잠시 후면 수가 누굴지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다 삐적삐적, 덜크덜크 덜크 소리가 그칠새 없이 나고, 불을 해치는 구루마는 사정없이 갑판에 걸리는 까닭에, 배를 탄

비타민이 부족 하면 ?



A가 부족하면 밤눈이 어둡고 전염병이 걸리기 쉽다.



B1이 부족하면 각기, 소화 불량, 또는 피로기심하고 손발이 마비된다.



B2가 부족하면 신경쇠약, 입맛이 없고 설사가 심해지며 입술이 부풀어 오른다.



C가 부족하면 피혈병(壞血病)을 앓는다.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사둥이가 되기 쉽다.

사람은 마음을 가다앉힐 수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합니다.

그러나 증기선이란 이 주루룩의 "솟고는 배" 라고 불리우고, 어떤 사람들이 파물이라고 말했다는, 그 배에다 개량을 몇번 거듭한 후, 드디어 오늘날과 같은 당당한 기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년 과학 문답집 "왜" 속편

어떻게 ?

과학 동무회 편찬
글 벗 집 발행

★꼭 알아야 할 과학상식 100가지
지를 모은 책.

★자습, 학습, 입학 준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책.

책 값 130 원

광판매 문장각 서울종로

하안쪽 배

정 인 택
그림·정 현 웅

(3)

사나운 꿈자리

(1)

.....아버지 소식을 알 때까지는 아무리 외롭더라도 혼자서 이 집을 지키자.

경애는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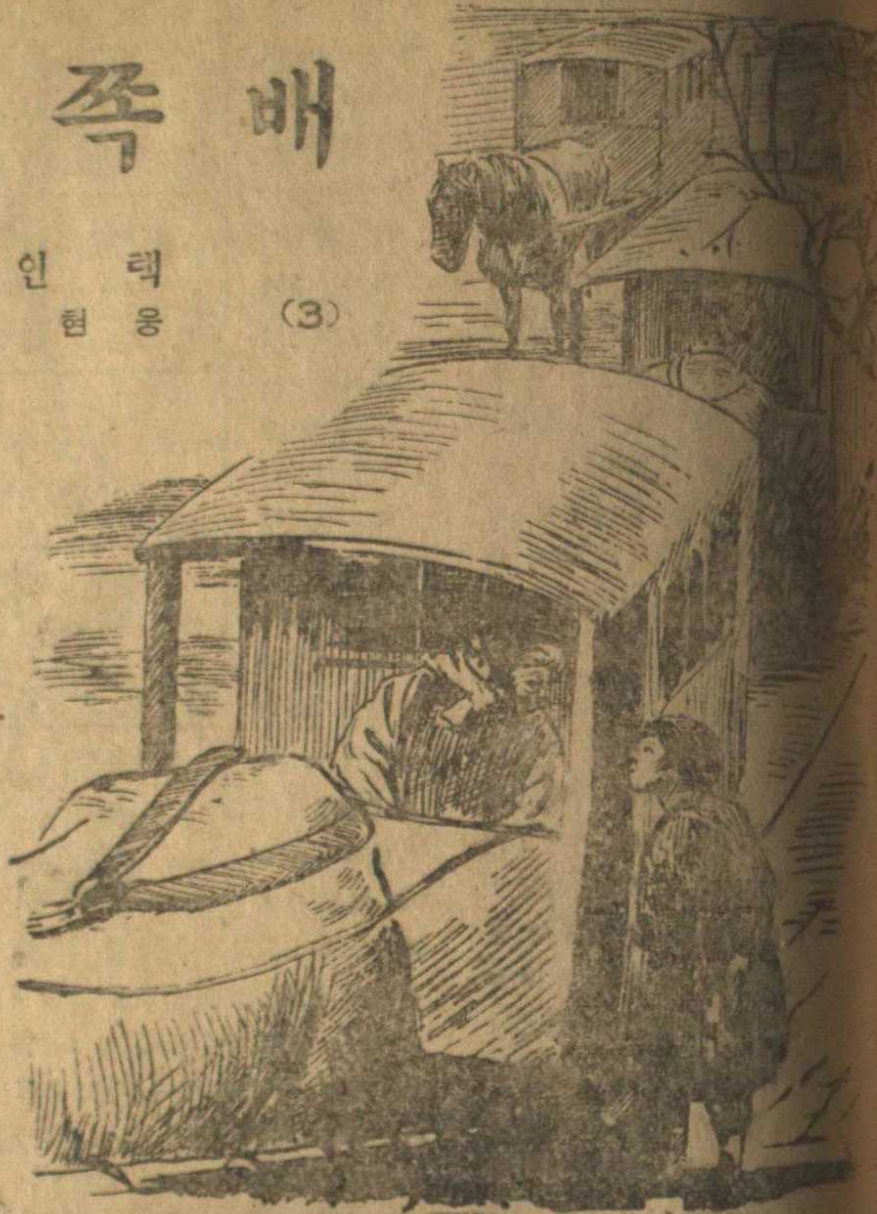
희의자나 상옥이의 친절한 마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경애는 꼭 참았습니다.

그 말대로 한다면 몸도 편할 것이고, 그렇지도 가고 싶던 학교에도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애는 아직 편한 것만을 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기영이, 상옥이, 금란이,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들까지 섞어, 초저녁부터 경애의 집 안방은 떠들썩했습니다.

비록 재미한 등잔불 아래였지만, 마음 속들은 모두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눈물에 잠겨 있을 경애를 위로해 주려고, 아니 잠서라도 외로움과 슬픔을 잊어보게 해 주려고, 모두들 이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기영이네 아주머니가 웃스운 옛날 얘기를 해서 까르르 한바탕 웃고 난 후에, 잠간 방안이 조용해졌을 때,

“뵈시나 됐을까?”

상옥이가 혼잣말 같이 중얼거렸습니다.

“글세.....”

이 동네엔 시지없는 집이 불과 몇집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제 날 태중해서 시

간을 알아 맞습니다.

“얼신 됐을꺼야.”

“그럼, 됐구. 말구.”

기영이네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아, 그럼 가서들 자자. 기영이허구 금란이는 오한 저녁에두 여기서 경애허구 같이 자렴.”

“네.”

경애는 그 말을 듣자,

“아네요.....”

하고 가로 탁았습니다.

“정말예요. 오늘비침은 저 혼자 질러요. 하루 이를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땀땀 같이 자요.”

경애의 말에 모두들 잠짝 놀랐습니다. 다른 아이 같으면 무시무시한 걸이 자자고 자기가 먼저 불드물는데, 대담한 경애는 자정에서 혼자 자겠다는 것입니다.

“정말이냐?”

기영의 비 아주머니가 눈이 둥그레 지퍼 들었습니다.

“정말예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두 집……”

경애는 생긋 웃고 나서, 이번엔 기영이와 금란이쪽을 향하여,

“불일철테니 아무 걱정말구 너희 집을 가서 자. 너희들 모양으로 집쟁이들 아니. 난 안부서워.”

이렇게 뽐내 보았습니다.

(2)

사방은 죽은듯이 고요합니다. 두들밤 같이 방 안은 캄캄합니다.

경애는 머리 위까지 이불을 꼭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잠입분, 한시간……

그러나 잠은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이 점점 맑아지는 것입니다.

부서울 생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자자니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틀체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 집에 안들어 오시는 아버지 생각, 장차 혼자서 살아갈 생각…… 그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더 무겁게 경애의 몸과 마음을 타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별안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경애는 참다 못해서 그 예 흑흑 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

“경애야, 왜 불투 안키구 이러구 있니?”

어머니 목소리에 경애는 책을 읽다가 머리를 쳐들어 방 안을 둘러 보았습니다.

어느 틈에 이렇게 어두어졌는지 방 안으로 들어 서지는 어머니 얼굴조차 희미할 지경입니다.

경애는 얼른 일어나 등잔에다 불을 대었습니다.

밥상을 가운데 놓고 마주 앉은 모녀는 말없이 술갈을 놀립니다.

말은 없어도, 밥상은 초라해도 두 모녀는 행복스러웠습니다.

“경애야.”

성난 목소리였습니다. 경애는 밥을 먹다 말고 잠짝 놀라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주 앉으셨던 어머니는 온데 간데 없고, 어머니 앉으셨던 자리엔 술이 고주가 되신 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경애는 정신이 얼떨떨 해서 눈만 뿔뿔뿔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대강 이야기★

역대자를 부리는 아버지를 따라 살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는 경애는, 오늘도 하루의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쓸쓸히 돌아온다. 언제나 베풀 같이 아버지는 일이 끝나면 어린 경애를 혼자 돌려 보내고 자기는 술집으로 가는 것이다. 집에 돌아온 경애는 말을 마구간에 두고 부러나서 차대준비를 한다. “애 경애야! 이른데 좀 쉬었다 하렴.” 기운없는 목소리가 방에서 들린다. 알고 제신 어머니의 더정한 말 씀이다. 그날 밤 그제 아버지는 안들어 오시고, 어머니는 점점 더 허약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고, 경애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동배 친할아버지 구원으로 외사를 불렀으나, 이 병에 잘 듣는 미국약 퀴니사린을 3000원짜리나 주고 살 돈이 없는 경애! 그러나 얼마 후, 경애는 어머니가 끔찍히도 아끼시던 옷감! 서집할 때 해주려고 준 옷감 팔기를 결심하고 마차를 달린다. 험악어리고 병원으로 가 돈을 주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니, 아아! 이게 어찌된 노릇인지. 이미 어머니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지 않은가! 경애는 기가 막혀 눈물도 안난다. 아버지는 아무리 곧보할아버지가 즐긴 곳 찾아도 없고…… 경애 뒤로 이어 온 외사가 왔으나 때는 이미 늦은 후다. 오늘은 장사날, 화장장 곁에 친의사와 곧보할아버지 앞에 부을 잃고 앉았던 경애! 살길이 막막한 경애! 그러나 동네 서림골은 모두가 서로 가난하였던 탓인지 친중하였다. 밭도 와서 지어주고, 외롭다고 동무들이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쉬행할을 살렸다는 최의사와, 자기 집에 와서 어린애를 봐주며 같이 학교를 다니는 상용이동무네 집이 더 친중하였다. 그러나 경애는 아버지를 찾는 날까지는 어떠한 쓰러진 일이 있더라도, 혼자 못 갖하게 살아 나아갈 것을 마음속 깊이 결심한다.

“필히 구 앉았는거냐. 얼른 가서 술 사오지 못해!?”

또 아버지는 호명을 하십니다.

경애는 술병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마약 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

가려는데 불쑥 누가 앉을 가로
막더니,

“경애야, 잘 있었니?”

하고 경애의 어깨를 꼬옥 껴안
습니다. 죽은줄만 알았던 오빠
였습니다.

“아이구, 오빠!”

반색을 하며 떠달리는 경애
를 뿌리치듯, 오빠는 힘없이 마
루 위에가 쓰러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신이 피루성
이었습니다.

“아이구머니나, 저걸 어찌!”

경애는 소스타쳐 놀라며 방
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뜻밖에도 방 아랫목에는 어
머니가 이불을 쓰고 단정하게
누어 계십니다. 종잇장 같이 흰
얼굴, 굳게 닫힌 눈과 입……돌
아가실지 벌써 오래 되는 것 같
은데, 꼭 살아계실 것만 같습
니다.

“이년아, 술……술 사오려니

잔 필해!”

아버지는 그런 것도 모르시
는지 여전히 주정을 하시며, 술
병을 집어들고 비틀비틀 밖으
로 나가십니다.

“아버지……”

어쩔줄을 몰라서 경애는 술
가마이 되어, 악을 쓰며 그 뒤
를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술병을 들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비탈길을 허
우적거리며 내려가십니다.

경애는 아버지를 붙잡으려고
뒤통바닥으로 쫓아가며,

“아버지! 어머니두 오빠두
돌아가셨는데 어딜 가세요…
…”

악을 쓰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웬 일인지
병어리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몇걸음 앞을
뒤뚱뒤뚱 걸어 가십니다.

경애는 부리나케 그 뒤를 쫓

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입니
다. 아무리 다름길을 쳐도, 영
천천히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반대로 점점 아버지와 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갈수도 올
수도 없고 해서, 경애는 그 자리
에 펄쩍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
하는 경애를, 누가 자주 혼날
어렵니다. 고개를 쳐드니까,
기영이, 상옥이, 금란이, 이렇
게 세 동무가 둘러싸고 서서,
“애, 어서 일어나 학교 가자.
길에서 무슨 장난을 치구 있
니……”

그리면서 세 동무는 경애의
두 팔을 잡아 이끄는 것입니
다……

(3)

꿈이었습니다.

밖은 어느새 휘연히 밝은 모
양입니다.

경애는

“무슨 꿈자리가 그렇게 사나
워……”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나려 했
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아떨어져 다
시 자리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
니다.

그 때에 비로소 경애는 자기
전신에 전담이 죽 배인 것을 깨
달았습니다. 맘이 식어감을 따
타 오한이 나기 시작해서, 전신
이 오들오들 떨립니다. 머리가
조래질 듯이 두통이 났습니다.



눈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머니!”

경애는 외마뼀소리를 지른 후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지를 오무렸습니다.

저서는 안된다

(1)

.....남에게 저서는 안되느니라.....

돌아가실 때 하신 어머니 말씀이 문득 경애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경애는 속으로 “그렇다!” 하고 외쳤습니다. 학교에 못가서 배운 것은 없어도, 또 비록 계집아이의 몸이기는 하나, 남에게 지지 않고 살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에게 지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나?

...착한 아이가 되어라. 남에게 귀찮게 하는 아이가 되어라!

어머니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악한 짓을 안하고, 사죄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기 할 몸을 바친다면 그것이 곧 착한 사람되는 길이요, 남에게 지지 않고 살아 가는 길일 것입니다. 남보다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이, 남에게 지지 않고 사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영리한 경애는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경애는 먼

봄과 겨울 유 달 영

가랑비 솔솔솔
시내물 졸졸졸
꽃송이 날날날
날마다 멀어지는 봄날

함박눈 pingping
방추물 pongpong
나뭇가지 달달달
날마다 멀어지는 겨울날



그림·김의환

저 해결지어 놓을 일이 있었을
니다.

그것은, 아버지 소식을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줄도 모르
고, 집을 나가신 채 들어오지
지 않는 아버지!

이미 그대로 가만히 앉아, 돌
아오실 때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애는 발벗
고 찾아 나서리라 결심했습니
다.

장 설합에서 있는 돈을 모조

리 꺼내어 세어 보았습니다.

최의사가 도로 갖다 준 3천
원과, 어머니 장사 지내고 남은
돈이 합쳐 5천원 가량 되었습
니다.

경애는 그 돈을 수건에 싸서
단단히 허리춤에 차고 집을 나
서며,

“아주머니! 점 좀 봐주세요.”
옆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
니다.

“그래라. 어디 가련?”

“네. 저어.....문앞에 좀 갖다



식을 알아보더구…… 나가는
길예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
다.

“참, 입때 아무 소식부 없으
시지?”

“네.”

“그저 이상한 일이다. 그래,
어디부 알아보러 간단 말이나?”

“글쎄요…….”

경애는 잠간 더뭇거리다가 이
윽고, 충기있는 눈을 번쩍 쳐
들고,

“선생님, 어디가서 물어보던
 좋겠어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아무 걱정부 없이 집
을 나왔단 말이나?”

경애는 대답을 안했습니다.

최의사도 말없이 일어서더니,
한참 동안 뒷짐을 지고 진찰실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나가다가… 선생님 생각
이 나서……선생님한테 의는
허려구…”

그해도 최의사는 대답이 없
습니다.

“선생님 저이 아버지즘……왔
아 주세요.”

경애가 또 한 번 이렇게 의
치듯 말하자, 비로소 최의사는
걸음을 멈추고,

“할 수 없다 경애야. 경찰서에
수색원을 내자.”

무슨 걸음을 한듯이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요?”

“그저 내 때려다 주마.”

경애 아버지 신상에 불행한

오겼어요.”

경애는 천천히 비탈길을 걸
어 내려 갑니다. 고개를 떨어뜨
리고 생각에 잠긴 뒷모양이 무
척 외로워 보였습니다.

(2)

“어디로 먼저 갈까?”

정처없이 떠난 길. 전차길로
나서려는 길 문에서 경애는 잠
잠 망서리다가, 최의사를 찾거
로 왔습니다.

진찰실로 들어서는 경애를 최
의사는 반갑게 맞이해,

“경애나, 어떻게 나왔니?”

“선생님, 한평히 주무셨어요
?”

경애는 풍손하게 허리를 구부
렸습니다.

“응, 즐겼구나. 어서 이리 오
너라.”

최의사는 경애의 손을 잡아
난로 옆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해 봤니?”

한참만에 최의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의사는 자기가
같이 있자고 한 말에 대해서,
경애가 대답을 하려 온출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경애는 얼른 무슨 뜻인지들
아들지 못해, 이렇게 되물고
나서,

“아저요. 저이……아버지 소

일이 일어났으리라는 것을 직각한 최의사는, 지금 그것을 경애에게 알리어, 더큰 타격을 주어도 좋을지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언제까지나 알리지 않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루바삐 그 결과물 알아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침착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경애를 격려하는게 상책이라고 최의사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최의사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의루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경애는 여전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3)

곧 각 과학소에 통지해서 알아봐 주겠다는 대답을 듣고, 행결마음이 가벼워진 경애는, 경찰서 문 앞에서 최의사와 헤어진 후 전차를 탔습니다.

서술역 앞 마차 많이 모이는데 가서 아버지 소식을 듣자는 것입니다. 인제 아버지 소식을 알아 볼 길은 이 한길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른다면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서에서 통지 오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애가 전차에서 내려 마차 있는 쪽으로 걸어 가려니까,

“경애야.”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다 보니까 저이 아버지

하고 마차부리는 소년 경남이란 아이였습니다.

“경애 있었니?”

경남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경애 앞으로 다가 오더니,

“어디 앓았니? 여러 날 안 나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경애는 금방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남들은 여전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씩씩하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내 신상에는 왜 이리 무섭고 큰 변화가 생겼나... 그것을 생각하

니 울음이 안터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애는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없이 고개만 좌우로 내 저었습니다.

그 때,

“경남아. 경남아”

저쪽에서 경남이 아버지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경남이는,

“네 곧 가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넌 어디 가니? 집이 나갈

★소년 과외 과학독본★

발명 과 발견

(내용의 일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발명 발견 하였는지?

불, 글자, 옷감, 나침반, 테디오, X광선 등, 40 여종을 알기 쉽게 그림과 글로 꾸민 유익하고 재미나는 책입니다.

값 200원

서울 아폴로사 발행

때면 우리 마차 타렴.”

경애는 얼른 대답을 못했습니
다.

“빨리 가, 차 떠난다.”

경남이가 재촉하는 바람에 경
애는 아무 생각없이 경남이와
함께 마차 쪽을 향해 걸음을 옮
기며, 문득

“찰 경남이 아저씨한테 여
췌보면...”

아버지 소식을 아실지도 모
른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자 경애는 반
타름질을 쳐서 마차쪽으로 향했
습니다.

“아저씨!”

경애는 힘껏 어리며 경남이 아
저씨 무릎에 매달렸습니다. 말
고삐를 잡고 앉았던 경남이 아
저씨는 깜짝 놀라며,

“경애로구나, 잘 있었니?”

“네- 아저씨 저이 아버지 못
보셨어요? 요새 며칠 동안...”

“물타. 왜 너이 아버지가 어더
나가셨니?”

“너두 벌써 어리랄때 너이 마
차가 안보이길래, 속으루 무
척 궁금했었는데... 왜, 무슨
일 있었니?”

경남이 아저씨는 까맣게 모
르시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경애로서는 더 물을것이 없었습
니다. 집에 갈때면 같이 타라는
경남이의 말을 뿌리치고, 경애는
발걸음을 돌이켜 다른 마차쪽으
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둘째 마차에서도, 세
째 마차에서도 대답은 독 같았
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사람도, 아버지
소식을 아는 사람도, 그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제일 친한 기적이
아버지까지가,

“경애야, 너 쨌 일이냐. 어더
않았니? 얼굴이 아주 못됐
구나. 너이 아버지는 요새 통
못뵈겜는데 어더 가셨나?”
이렇게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인제는 절망이다.....

집을 나올 때의 굳은 결심도
잊어버리고, 경애는 턱석 땅 위
에 주저앉아 울고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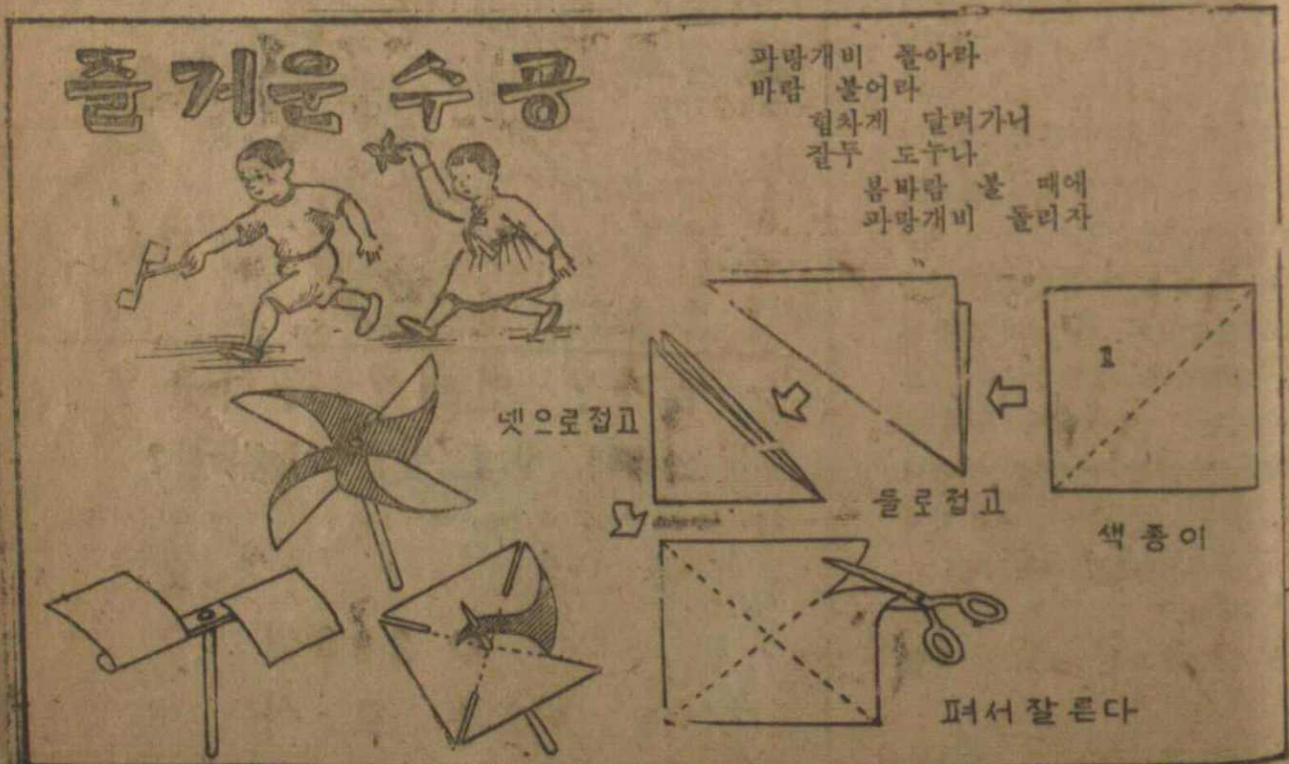
—계속—

어린이 피아노 책

책값 300원

김 매리 선생 꾸밈

아 협 발행



나 그 네

정 비 석

꽃밭에 노랑 나비가 한 마리 날아 왔습니다.

나비는 이 꽃 저 꽃 입맛추고 돌아다니며 인사를 합니다.

해바라기를 보고도

“안녕하십니까?”

츄우립프를 보고도

“안녕하십니까?”

채송화를 보고도

“안녕하십니까?”

나비는 이 꽃 저 꽃 입맛추고 돌아다니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해바라기도 츄우립프도 채송화도, 모두 방긋 방긋 웃으며 나비를 반겨 맞았습니다.

나비는 한 송이도 빼지않고 꽃을 찾아 다니며 인사합니다. 그러고 인사가 끝나자 나비는 나불 나불 담장을 날아 넘어 다른 꽃밭으로 갑니다.

나비는 꽃나라의 영원한 나그네 인가 봅니다.



22마 상식

★ 자외선 (紫外線) ★

여러 분 학교서 잇과시간에 태양에는 자외선과 적외선(赤外線)의 두 가지 빛이 있다는 것을 배우셨죠? 여름에 뜨거운 별을 쓰이면 얼굴이 까맣게 걸지요? 그것은 즉 자외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외선은 산과 바다

와 물 중에 어느쪽이 더 강한지 여러 분 아십니까? 그것은 산이 더 강합니다. 별에 거는 것도 산이 더 하나, 등산하는 사람들은 털거벗지 않고 옷을 입은채로 산에 오르는 까닭에, 기는 것을 면하는 것입니다.

★ 빛의 속도 ★

빛은 불건이 라든지 또는 전기로 열을 보냈을 때 나는 것으로, 빛, 즉 광(光)이 나아가는 속도(速度)는 1초 동안에 3억 미터

(19만 2천 5백마일)입니다. 그러면 1초 동안의 8분의 1시간으로 지구를 한바퀴 도는 셈입니다. 또 이 광이 공기에서 물속으로 들어 갈 때는, 구부러진 것에 부딪치면 반사(反射)합니다. 그리고 잘 담은 평평한 곳에선 반듯하게 반사하므로, 반듯한 모양을 비춥니다. 귀울은 이것을 응용한 것입니다. 광이 세 모의 기둥모양을 한 유리(프리즘)를 통할 때는, 구부러져서 여러 가지 빛으로 갈라집니다.

4월 20일까지 마감

지금 한창 들어오는 중!

아 협
상타기

동요 와 작문

네번째
모 집

상금은 모두 50,000 원

우리 아협에서는 이번 “어린이 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소학생 여러 분의 작문과 동요를 모집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학생은 누구나 빠짐 없이 다들 지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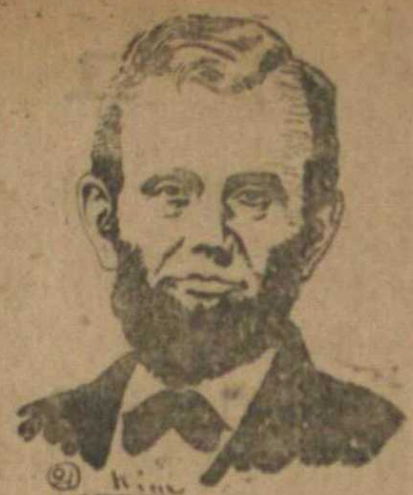
상

- 1. 특등—2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5,000 원씩
- 2. 우등—10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2,000 원씩
- 3. 입선—20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1,000 원씩
- 4.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내신 학교에는 따로 학교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아 두실 것☆

- 마감은 4282년 4월 20까지 도착 되도록.
- 발표는 4282년 5월 5일 각 신문과 “소학생” 6월치에.
- 보낼 곳은
서울市 鍾路區 鍾路二街 82 永保빌딩
朝鮮兒童文化協會
- 이 밖에 자세한 것은 “소학생” 65호(3월지)를 보십시오.

4282년 3월 **兒 協**



그림애기책

린 콘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린콘의 이야기
아협 꾸밈·값 150원

많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는 분은 **린콘** 대통령입니다. 어찌하여 그러한 인민의 존경을 받을까요? 그는 겨나 제 지워림 권타 다니던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여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세웠으며, 남북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훌륭한 것은, 그의 어렸을 적 애기가 진실로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책 한 권 변변히 읽어 읽지 못하고, 다만 정직하고 부끄럼라고 착한 것으로, 온 나라의 신망을 독차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전기는 여러나라 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퍼져서 읽히우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도 으뜸가는 책을 가지고 꾸민 것으로, 그림이 다든지 글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여러 분은 꼭 한번 읽어 볼만한 의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두산 이야기 ② ★

세포고원(洗浦高原)으로 동해(東海)가로

홍 종 인

기차는 떠났다. 그 때의 일경은 때가죽어있다. 경청 많은 등산가를 중심으로 하고, 학자 전문가가 수두룩히 모였던 것이다. 동물·식물·지질(地質)·광물(鑛物)·농림·기상(氣象)·수산(水産)·지리·역사·의학, 그리고 문인이며 사진예술가 등이 같이 하여, 여러 방면의 전문가 학자가 갖추 모이는 것이, 학술적 탐사를 위한 등반대(登攀隊) 혹은 탐험대를 편성(編成)하는 때체의 방법이다.

기차가 떠나고도 한참 동안은 짐을 정돈하기에 누구나 바쁘다. 짐이라고 하면 작 게일이나 만체의 식량과 장비뿐만 생각하기 쉬우나, 그런 것 보다는 산중에 들어가서 작기 전문방면에 따라서 자료를 채집하여, 조사·연구하는데 필요한 거구며 약품 등속, 귀중한 것이 적지않게 큰 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기차는 어느덧 강원도 땅으로 들어가서, 석양넘 바람도 시원한 북계(福溪) 세포(洗浦) 부근의 넓적넓적한 고원지대(高原地帶)로 달릴 때를 해서, 한참 시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자,

“자! 여기서부터가 백두산이다. 그래 그렇지 알만 말인가……”

누군가 이렇게 외친다. 찾간은 한바탕 웃음판이 되었다.

“아니, 저 사람이 백두산에 경심이 깔렸단 말인가. 서울을 떠나자마자 백두산이라니……”

역시 모두 웃었다. 그러나 서로 주고 받는 웃음의 이야기였다고는 하나, 생각하면 어느 것이나 흥미있는 말이다. 하기는 지금 조선반도의 허리를 타고 넘으면서, 반도의 맨 뒷끝에 있는 백두산이 여기서부터란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가 가진 지도에는 확실히 북위(北緯) 42도 7분, 동경(東經) 128도 선에 걸쳐 있는 만주와 조선과의 경계 지점이자, 우리 나라 함경남도와 북부 경계 지점에 있는 일점에 삼각점을 찍은 곳을 가리켜 백두산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지도에 그려 있는데로 조선반도와 만주를 아울러서, 그 일대의 지형(地形)을 넓게 살펴본다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높이 1000미터 이상, 2000미터 내외로, 높이 두드러진 지면이 사방으로 뻗어 나

아간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남쪽으로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로서 평안북도 일부도 차지하여, 광대한 산악의 고원지대를 이루고 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속 뻗어 내려가서, 마치 조선반도의 등마루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백두산에 잇달린 이 고원지대를 게마고대(蓋馬高台)라고 부르는 것이고, 다시 그 이남으로 뻗은 산맥을 보통 적량산맥(脊梁山脈……혹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사이에 있는 태백산까지 뻗어 내려갔다)고 해서 태백산맥이라고도 한다) 이라고 하여, 풀고기나 짐승으로 일컬으면 등짐이요, 짐으로 일컬으면 배를보라 같다는 뜻을 가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반도의 등허리를 넘으면서, “여기도 역시 백두산의 한줄기다.” 라고 한때도 만드시 만이 한말 것은 없을 것이다. 물론 땅이 잇다랐고, 산이 백두산에서 뻗을 라고 났다고, 어디서든 백두산 오르는 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여간 일행은 티끌과 밤의 서울을 떠나서 강원도의 고원지대로 기차가 달리는 순간에, 모두가 벌써 백두산에 오르는 듯 상쾌한 기분을 맛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요, 또 조선의 지형으로 보아 그런 말이 나올즉 하나는 것도 넉넉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임에 들림없다.

그런데, 다시 백두산의 지형과 아울러, 그 산체(山體)를 생각한다면, 과연 여기서부터가 백두산이라고 꼭 찍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우리 백두산이 다른 나라의 어느 산보다도 특이한 일면이 되어있는 것도 알아 주

어약 할바인 것이다. 우리가 천산, 한홍을 지나 동해바다를 바라다 기차 연선에 끼고 달리면서, 그 반대 방향의 육지가 병풍을 두른 듯, 거대한 산이 첩첩히 둘러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지도를 살필 때, 백두산 산맥이란 사실 어디서부터라고 할 것인가 어렵도 짝을 수가 없다. 위에서 말한 백두산 봉우리를 중심으로 한 광대한 산악 고지대의 개마고대는 별관과 같이 되었고, 그 한가운데 천지(天池)의 호수(湖水)를 담은 불독하니 솟은 산덩어리가, 마치 태접을 얹어놓은 듯이 앉아있는 것이다. 실상

백두산을 다 보고 나서도, 일제 어디서부터 백두산에 올라갔었던가 싶게, 백두산의 산 형태를 말하기가 어려웠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백두산에서 동남쪽으로 함경남북도 도계(道界) 일대는 무연한 별관 같은 고지대를 이루었고, 그 가운데

점점이 보이는 높은 산을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섬 같다고 하면, 그 밑의 작은 산은, 과도와도 같다고 할만큼 고대(高台)는 멀리 12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나가서, 동해안 해안선 가까이 설령산맥(雪嶺山脈)에서 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백두산이 원래 화산이어서, 화산이 터져 나오면서 현무암(玄武岩)이 흘러서 고인 그대로 평평하니 되었다는 것인데, 이같이 하여 백두산의 택지(台地)가 동해바다의 거의 가장까지 떨어져 나갔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함경남

북도 뜨게 방향의 해안선에서 얼마를 떨어져서 고지대를 찾아본다면, 벌써 백두산 어구에 들어서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지리에서 배울 것은, 화산인 백두산에서 동해바다로 출구를 행진한 백두산화산맥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산맥이라고 하면, 여러 산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연결한 지다란 산덩어리가, 혹은 남북으로, 혹은 동서로 한 방향을 지어서 뻗어 나아간 형태(形態)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화산맥이란



것은 보통 산맥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화산과 화산 사이의 화산활동이 깊이 땅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맥락을 말하는 것이다.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백두산화산맥은 백두산에서 비롯하여, 동남쪽 함경남북도의 도계를 이룬 뿔발로 뻗쳐 나아가는 것이 동해바다로 들어가서, 울릉도 독도(獨島)를 거쳐서 일본의 산음지방(山陰地方)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도 연결에 실지 가서 자세히 살핀바도 있지만, 화산이 터졌던 자취가 명확하게 지금도

분화구(噴火口)가 남아있다. 울릉도나 독도가 화산으로 터졌던 때는, 백두산이 터졌던 때와 일맥 통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울릉도나 독도는 이미 화산의 활동시대를 완전히 지나서, 사화산(死火山)이라 할 것이다. 백두산만은 아직 화산활동이 휴식상태에 있다고 하여 휴화산(休火山)이라 한다. 그런데 일찍이 동해바다로 육지였던 것이, 땅이 두터워져 바다가 되었다는 설(說)도 있고, 또는 동해바다가 호수였던 시대도 있다는 설도 있다. 즉 지구가

점차로 변화하여 몇 천만년 동안에 오늘날 같은 육지와 바다와, 그리고 육지에는 산과 평지와 바다에는 길고 얕은 곳이며 섬이며 암초(暗礁) 같은 것이, 대략 확실한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는, 우리 지구의 표면에 나타난 무상한 변화 가운데서, "백두산과 동해물"과의 관계만 것은, 우리 백두산화산과 거기서 시작된 백두산화산맥의 관계도 깊이 오리탄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계속)—

★ 아 령 적 ★ 사랑의학교

학교 진물이 있고, 학생이 있고, 선생이 있으면 완전한 학교라고 하겠읍니까? 아닙니다. 학교에는 사랑이 넘쳐도록 있어야 합니다.

아미치쓰 지음·이 영철 번역
46판 230페이지 책값 300원
문 장 각 30원



☆ 세계에서 제일 재미있는 소년 소설 ☆

십 오 소 년 (후편)

쥘스 베르느 지음 · 이 경 일 번역



(十五少年 후편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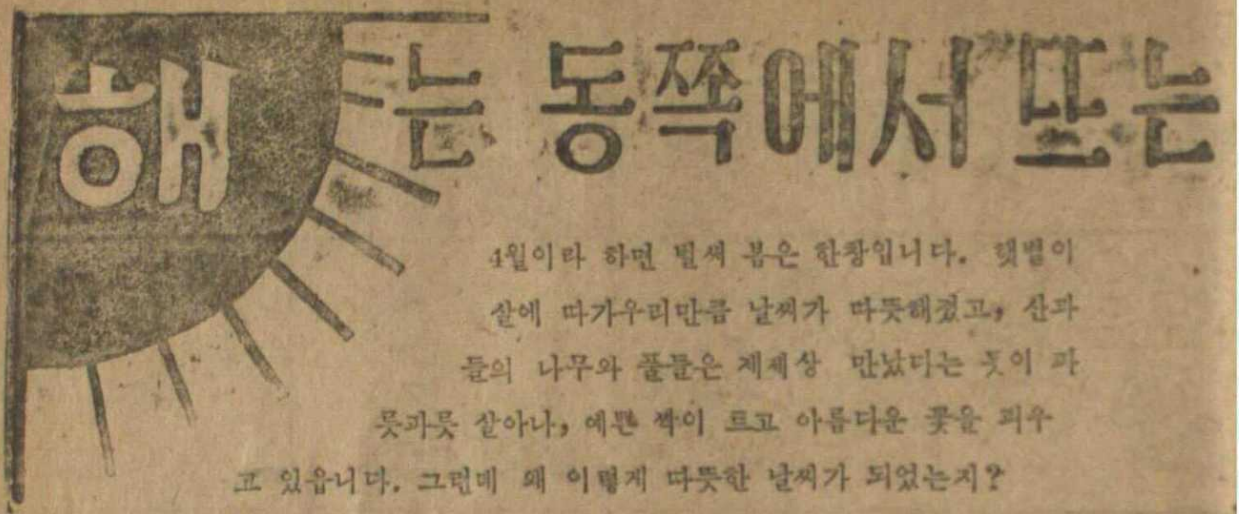
“十五少年”이 얼마나 재미있고, 거기에 나오는 소년들이 얼마나 씩씩한가는 전편을 읽어보신 분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후편에는 그 열다섯 소년들이, 범과 싸우고 악한 늑대도 용감히 싸우는 아주 아슬아슬한 대목 뿐이어서, 단편 책

을 들면 끝까지 읽어 버티야 시원하도록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책값 170 원

건민 문화사 발행

(지금 책사마다 가는 중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는

4월이라 하면 벌써 봄은 한창입니다. 햇볕이 살에 다가우리만큼 날씨가 따뜻해졌고, 산과 들의 나무와 풀들은 제제상 만났다는 듯이 파릇파릇 살아나, 예쁜 색이 뜨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되었는지?

3월 21일 춘분(春分) 날의 일출(日出)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여러 가지로 연구하여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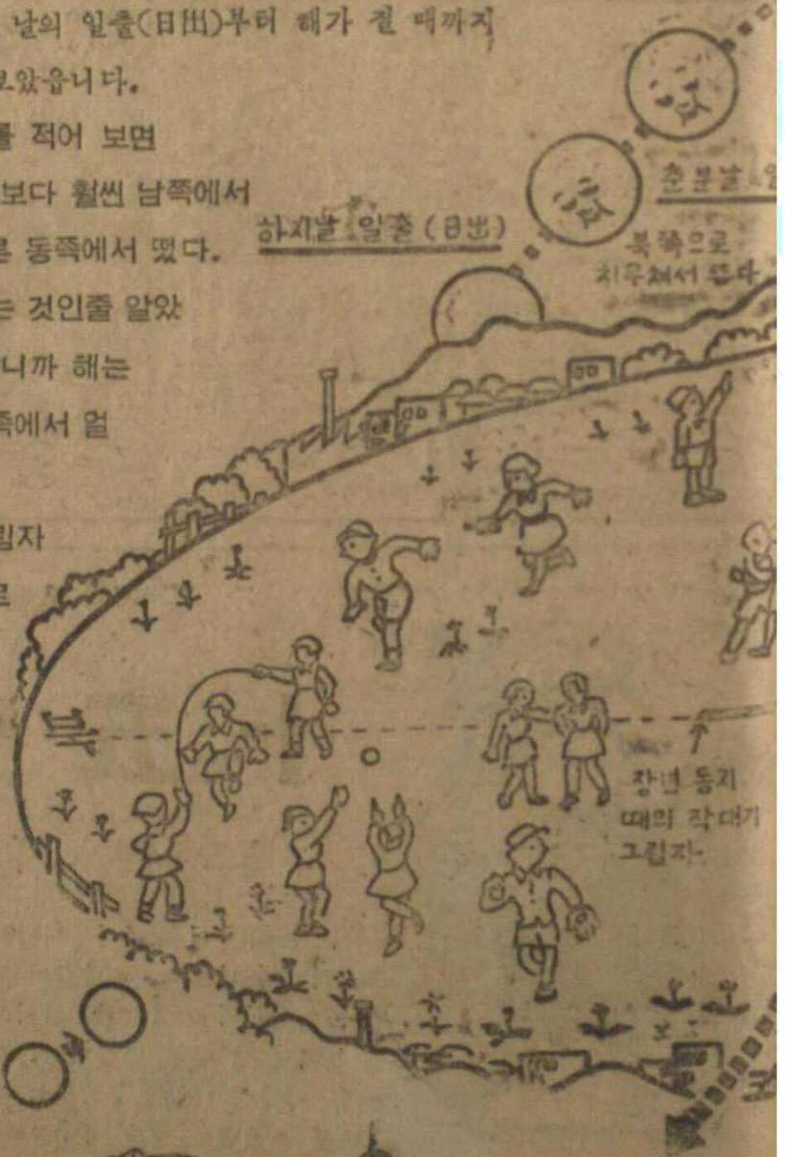
그 날 기록한 노트를 적어 보면

1. 동지날은 똑바른 동쪽보다 훨씬 남쪽에서 뜨던 해가, 오늘은 똑바른 동쪽에서 떴다.
2. 해는 곧장 하늘로 뜨는 것인줄 알았더니 비스듬히 뜬다. 그러니까 해는 똑바른 동쪽보다 조금 오른쪽에서 얼굴을 내놓는 것이다.
3. 낮에 1미터의 작대기 그림자는 62 센치메터였다. 이것으로 동지 때 162 센치메터보다 아주 짧아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늘의 일출(日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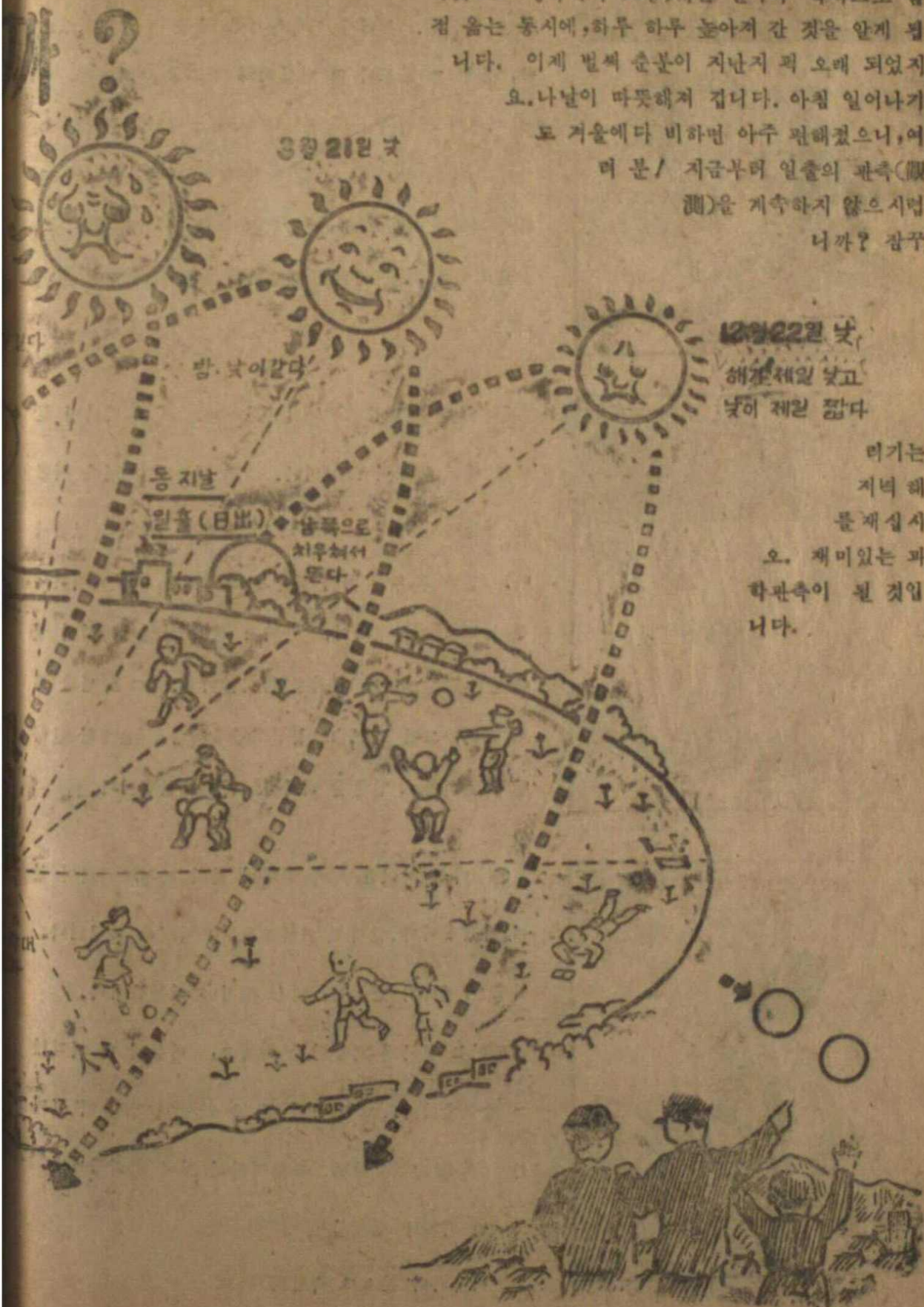
춘분날

북쪽으로 치우쳐서 뜬다



장년 동지 때의 작대기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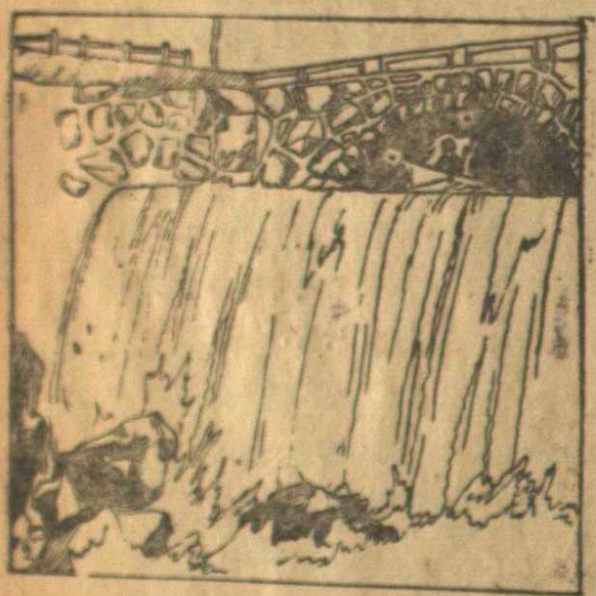
이것으로 생각하여 보면, 맑은 날마다 북쪽으로 점
점 옮는 동시에, 하루 하루 높아져 간 것을 알게 됩
니다. 이제 벌써 춘분이 지난지 꽤 오래 되었지
요. 나날이 따뜻해져 갑니다. 아침 일어나기
도 겨울에다 비하면 아주 편해졌으니, 어
려 분! 지금부터 일출의 관측(觀
測)을 계속하지 않으시렵
니까? 잠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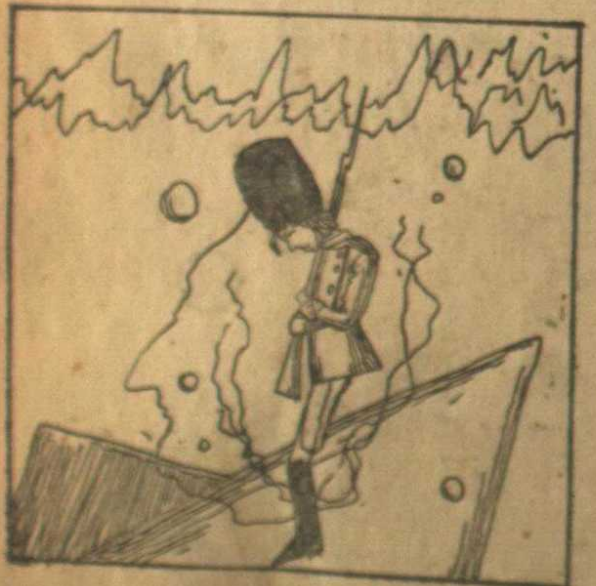
인형병정



㉔ 갑자기 하수도에 사는 커다란 새양귀가 나타났습니다. “너 증명서 가졌니?” 하고 물습니다. “가졌으면 어서 내.” 그러나 인형병정은 아무 대꾸도 없었으며, 종을 그 권보다 더 단단하게 쥐었을 뿐입니다. 배는 떠내려 갑니다. 새양귀는 따라 옵니다. 새양귀는 얼마나 끈이 낫기에, 이를 딱딱 갈고 나뭇조각하고 쪼 더러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그 놈을 못가게 해라. 그 놈을……그 놈은 세금도 안냈다. 그 놈은 증명도 안했다.”



㉕ 물결은 점점 더 억세어집니다. 벌써 아이지 끝나는 데에 햇별이 보입니다. 그는 아무리 사나운 사람도 놀랄만한 무서운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을 나오는 데서 하수도는 갑자기 기울어지며 커튼 폭포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만큼 그에게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는 범을 세도 없이, 그만 그 위로 들진하였습니다. 불쌍한 인형병정은 그때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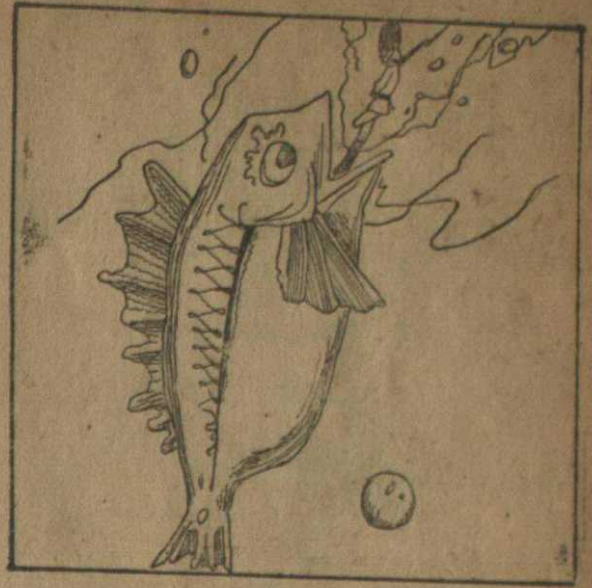
㉖ 배는 서너번 뱅뱅 돌더니 거의 가장자리까지 물에 빠졌습니다. 인제는 가라앉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물은 목에까지 찼으며, 배는 점점 가라앉습니다.]

종이는 젖어서 야들야들 해지고, 마침내 다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볼 수 없는 암전한 저 아가씨 생각을 하였습니다. 노랫가락이 귀에 울려옵니다.]

갈 가계! 인제나 용감한 용사
떠나가며 앞으로 죽임의 터로

㉞ 그리고 종이배는 조각 조각으로 되어버리고, 병정은 물 속에 빠지고 바로 커다란 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고기 뱃속은 어저면 그렇게도 어두울까요. 굴속보담 몇곱절 더 어두웠고 또 좁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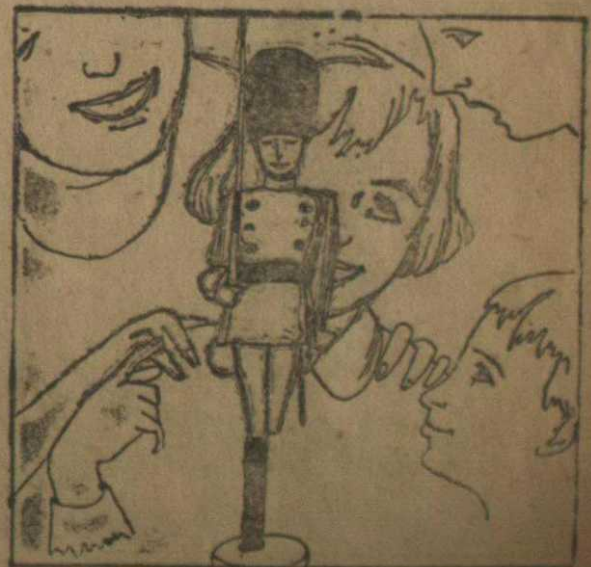
그러나 인형병정은 여전히 끈끈하였으며, 그는 종종 언채로 길다라하게 드러누었습니다. 고기는 이상야릇하게 움직이면서 이리 저리 가더니, 그만 도무지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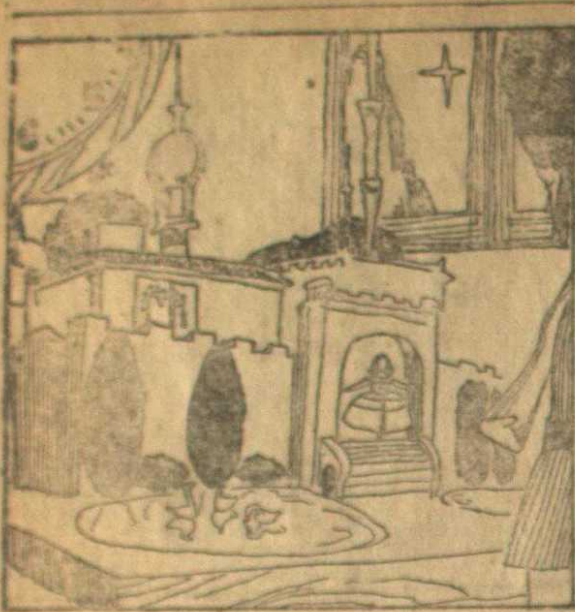


㉟ 얼마 있으려니까 번갯불이 고기 몸둥이에 통한 것 같이 생각되더니, 어느 틈엔지 햇별이 나타나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것봐라! 인형병정일제.” 고기는 불잡혀서 시장으로 보내져서, 그리고 요릿집에 팔려서 요리인은 그것을 부엌으로 가지고가, 큼직한 식도르 잘랐던 것입니다. 요리인은 병정의 허리를 손가락 사이에 끼어서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㊱ 모두들 고기 뱃속에서 여행을 한 이 이상스러운 병정을, 신기해서 자주 보고싶어 하였으나, 그는 조금도 그런 것을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인형병정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정말 이 형제 야릇한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담……그는 똑같은 밤에 있었겠지요. 바로 그 방의 창문에서 그가 떠났으니까요.





㉞ 거기에는 똑같은 그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똑같은 정난감이 놓여 있고, 그리고 성문 안에는 압권한 아가씨가 서 있는 아름다운 성이 있었읍니다. 그 아가씨는 여전히 한쪽 발도 몸을 유지하여, 다른 한쪽을 치켰읍니다. 그래도 인형병정과 마찬가지로 단단하엿읍니다. 아가씨와 만나게 되어서, 인형병정의 마음은 대단히 설렘이엿으며, 거의 눈물이 나온 지경이엿으나, 그는 꼭 참았읍니다.



㉟ 얼마 안있어 한 어린아이가 인형병정을 집 들러니, 난도 속으로 던졌읍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무 이유없이 던졌던 것입니다. 그 때 필경 이것은 저 달의 갑 속에 사는 마귀가 하는 짓일겁니다.

불꽃은 인형병정을 서 있는채로 태웠읍니다. 열은 강장했읍니다. 그러나 그 열이 정말 불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사람의 불꽃에서 나온 것인지 그는 분간 못했읍니다.



㊱ 그리고 인형병정은 자기가 입고 있는 화려한 갑옷의 색깔이, 다 바래비린 것을 깨달았읍니다.

그러나 여행하는 사이에 벗어져서 남은 것인지, 혹은 슬픔 때문에 색깔이 바래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인형병정은 조그마한 아가씨를 쳐다 보읍니다. 아가씨도 인형병정을 보읍니다.

③ 인형병정은 자기 몸이 점점 녹아가는 것을 알았으나, 그때도 여전히 총을 어깨에 멘 채로, 꼰꼰하게 서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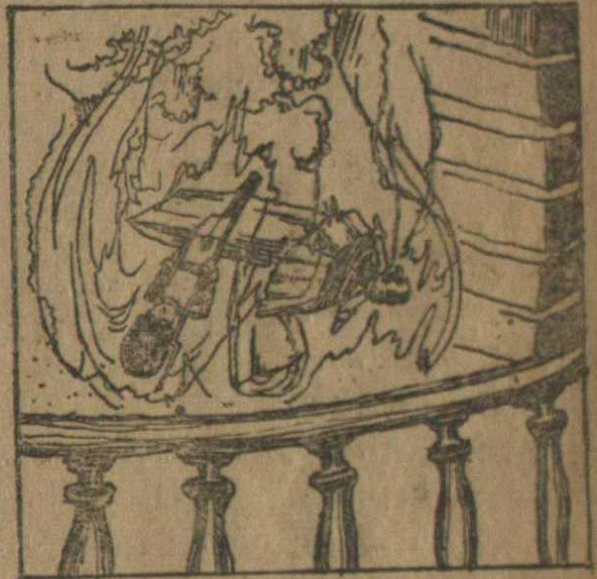
별안간에 방 문이 책 열리더니, 림바람이 그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바람귀신처럼 아가씨는 윙윙 날아서 난로 속의 인형병정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불꽃 속에서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④ 인형병정은 다 녹아버리고 인제는 덩어리만 남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식모가 난로의 재를 긁어 내려고 있을 때, 인형병정이 하아트(심장)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아가씨는 다 타버리고, 금빛으로 반짝거리던 장미꽃이 끈 솜처럼 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끝)



◎“소학생” 방송실◎

“우리들의 여론”을 모집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거점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서, 아 참 아름다운 열이다 하고 느껴진 것, 또는 아 이것은 너무 심하구나 하고 생각

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또 어른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소학생 생각으로는 좀 재미 없다고 본 것이라든지, 소학생을 위하여 이런 것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을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이지만, 소학생 전체가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조금도 숨김 없이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하며, 또 여러분이 피로워하는 것이라면 덜어 주

려 하고, 원하는 것이라면 물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주의할 것은,

1. 거짓말을 하지 말 것.
2. 남의 욕되는 것을 쓰지 말 것.
3. 500자가 넘지 말 것.

이상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른들의 대답도 함께 실겠습니다.

“소학생”에 실게 되는 원고를 보낸 분에게는, 사제로 책을 돌려 보내 드립니다. (편집부)

봄과 어린이

최 병 화

이름에 어린이들의 놀이터인 크게 벌 넓은 터전에는, 비단 같이 보드랍고 아름다운 풀더가 깔려 있고, 그 근처를 베짖는 울타리, 개나리, 진달래, 복사, 살구, 배나무들이 떠엄떠엄 있었읍니다.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편을 갈라 경주도 하고, 달밤이면 슬박슬박도 하고, 옛날 개기도 하며, 아주 재미 있게 유쾌하게 놀았읍니다. 그리 이곳은 언제든지 어린이들의 노래와 웃음으로 꼭 찼었읍니다.

세월이 이 나무 저 나무로 날아다니며 노래를 하고, 꽃피는 봄이면 나

비들의 춤도 불만하였읍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 어린이들의 놀이터에는 큰 양옥절을 짓고, 꽃나무들을 안에다 두고는 베짖는 울타리 높은 벽을 담을 쌓았읍니다. 그리고, 빗장을 단단히 지른 때문 앞애다가

이 집에는 사나운 개가 있으니, 일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집주인”

이렇게 큰 나무 패가 우뚝 서 있었읍니다.

자기들의 놀이터를 빼앗긴 이 동네 어린이들은,

높은 담을 쳐다 보면서 “이 안에서 놀 때는 꼭

재미 있었지?” “그때 그때, 잔디 밭에 덩굴기두 하구, 술래잡기두 하구.” “난 달밤에 모여 앉아서 둘러 가면서 얘기 두 하구, 노래 두 하던 때가 제일 좋았어.”

“나두 그래.” “그런데 이 집에는 누가 산다든?” “내가 한번 보니까 뚱뚱보가 왔다 갔다 하던데.”

“그럼, 우리 이 집을 뚱뚱보집이라구 부르자.” “그때 그때, 그거 좋다.”

이렇게 전에 즐겁게 놀던 때를 그리워 하면서, 높은 담을 원망스럽게 쳐다 보다가는, 밀속해져서 돌아를 갔읍니다.

어느덧 봄이 와서 이곳 저곳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작은 새들도 기쁜 듯이 짹짹어티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런데

웬 까닭인지 “뚱뚱보집”에는 봄이 아니므로 그저 겨울이였읍니다.

해마다 봄이 제일 먼저 찾아오던 이곳에는, 새들도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이 집에 와서 노래를 아니하고, 나무와 풀들도 꽃피는 것을 잊어버리고, 깊은 잠에 잠겼읍니다. 으쓱 한번 문틈을 파아란 색이 고개를 살며시 쳐들다가, 나무 새를 보코는 어린이들이 가없어서 드르음질만 속으로 들어가 버렸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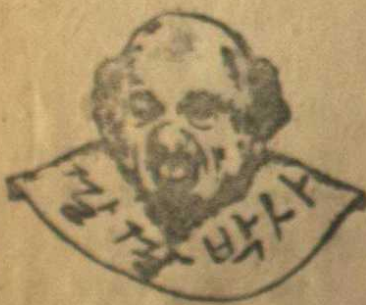
호기를 부리고 거북하는 것은, 눈과 서리와 바람이였읍니다.

“이 집에는 봄이 안왔어 온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철 이 집에서 살수 있지 않느냐?”

“그때, 서리 말이 읊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말자.”

눈, 서리, 바람은 이



★ 북

아들...아버지, 나 복하나 사

줘서 응!

아버지...자꾸 두드려니까 시끄러워 안된다.

아들...그럼 저녁 때, 아버지 주무실 때 두드릴게요. (서울 중로 5가 125의 2 코기덕)

★ 세 월

아버지...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다.

차들이...자동차보다 더 빠른가요?

아버지...아암 빠르고말고.

차들이...나 한번 타봤으면!

한 번 타는데 얼마예요?

아버지...몇이 어찌고 어찌!



별게 말하면서, 눈은 크
고 흰 이불도 땅을 덮고,
서리는 밤가벗은 나무들
을 손빛으로 문지르고,
바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쉽!쉽! 소리를 지르면
서, 제멋대로 돌아 다녔
습니다.

“왜 우리집만 봄이 안
올까?”

똥똥보는 방 안에서 눈
과 서리로 하얗게 덮인
꽃을 내다다 보면서 화
를 냈습니다.

이제 날 아침이었습니
다.

귀라 말할 수 없는 아
름다운 음악소리가 들려
와서, 똥똥보는 잠이 깨
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똥똥보가 하도 신기해
서 벌떡 일어나서 유리
창을 활짝 열고 내다보
니, 새들이 이 나무 저
나무에서 노래를 하고 있
었습니다. 눈과 서리는
하룻밤 사이에 다 없어
져버리고, 과야란 풀들,

이 들에 가득 났습니다.
포근히 내뿜 쪼이는 햇별
에 풀들이 잠을 깨 모양
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지
각색 꽃들이 다투어 피
어, 노랑, 빨강, 분홍,
흰빛 이렇게 꽃동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똥똥보는 싱그레 웃으
면서 꽃나무들을 바라보
다가

“저런, 저런, 새들이 어
떻게 들어 왔어?”
하고 눈을 크게 떴습

니다. 꽃나무마다 어린
이들이 한 사람씩 차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북쪽 구석에 의따로
이 있는 복사나무는, 서
리가 얇은 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 때 제일 늦게 들어

온 제일 작은 어린이가,
쪼루루 북쪽으로 가서
복사나무를 만지니까,
금방 앞이 나오고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을 톡
톡히 본 똥똥보는 무릎
을 탁 치며,
“아, 내가 바보였구나.

진작 어린이들을 불러
드릴걸.”

하고 부리나게 뛰어
나가서 단단히 닫은 대
문 빗장을 빼고 대문을
짜 열어 놓았습니다. 그
리고 “이 집에는 사나운
개가 있으니 들어오지
마시요.” 하는 나무패를
뽑고, 그 대신

이 집은 어린이들
의 집입니다. 어린
이들은 아무 때나 들
어와서 마음대로 노
서기 바랍니다.

“집주인”

이러한 나무패를 세모
세워 놓았습니다.

그 뒤로는 이 동네 어
린이들은 전과 같이 어
들에서 재미있게 유희하
게 놀았습니다.

여러 어린이들 틈에 끼
어 이리 뛰고 저리 뛰어
함께 놀고 있는 어린이
아닌 어린이가 있으니,
그 사람은 이 집 주인 똥
똥보였습니다.

(서울 매동교 4의5 흥 승우)

부손가락

잡들이...복순아, 너 사람의 손
가락이 왜 다섯개 있는지 알아?

복순이...몰라, 너는 아니?

잡들이...이 바보야, 그것두 몰
라. 장갑에 손가락 넣는 구멍이
다섯개 있지 않아!

복순이...??? (인천 서림 국
민교 4의 2 이 정화)



★새로 나온 아홉 책★
노래동무 제1집
노래동무회 엮음
책값 100 원

★새로 나온 아홉 책★
꿈나라의 아리스
그림·정 현웅
책값 80 원



어 밖에 사슴, 노루, 여우, 살쥬이, 이리들 많은 산짐승. ★ ★ ★

무 대

알뜨막한 언덕 바른쪽에는 문 앞에 배나무가 서 있는 조그만 가와집이 있고, 왼쪽에는 여러 가지 나무 숲이 있다. 언덕 한 가운데 저 멀리는 뱀방석 보다 더 큰 둥근 달이 있고, 달 속에는 달뜨끼가 절구질을 하고 있다. 절구질 소리는 멀어서 들리지 않는다.

막이 올라 가면 바둑이가 혼자서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 조금 후에 감장이가 집 뒤를 돌아 나와서, 바둑이를 건너다 보고 작은 목소리로 야아웅 하고 놀린다.

감장이 (바둑이 앞으로 가까이 가서 조금 큰 소리로) 야아웅

야아웅. 바아보 야아웅. 이제 이 바보가 잠만 자나. 요거 코침을 한대 줄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둑이 코에 줘줄다.)

바둑이 아이아 아چه (재채기를 하고 코를 비티며) 요것이 요.

감장이 호호호호호...

바둑이 요것아 건너 봐라. (언덕 아래로 뛰어 내린다)

감장이 (언덕으로 뛰어 올라 가며) 응 응 죽겠다.

언덕으로 올라 갔다 내려갔다 한 동안 들이서 경난친다.

바둑이 (감장이의 귀를 깨닫고 언덕으로 올라 가며) 요것아 요것아.

감장이 야야 야야 야야. 내 고기 갖다 줄게. (해해 웃으며 마로 잡는다)

바둑이 요것아 죄무 가.

감장이 그래서 안 먹지. 저 배 나뭇집 부엌에 가 봐. 미워가 뒤집힐테니.

바둑이 배나뭇집? 응 그집꺼문 좋아.

감장이 왜? 죄무 간다메?

바둑이 그놈어 집이선 지난 초복날 우리 동무 잡아 먹었어.

감장이 참.

바둑이 어서 가 가쳐 와.

감장이 그럴지만 기다려. 달 질 때까지.

바둑이 요것아 언제.

감장이 급하긴. 이것이 가 봐라. 그 집 마루엔 사람이 하나 가득 하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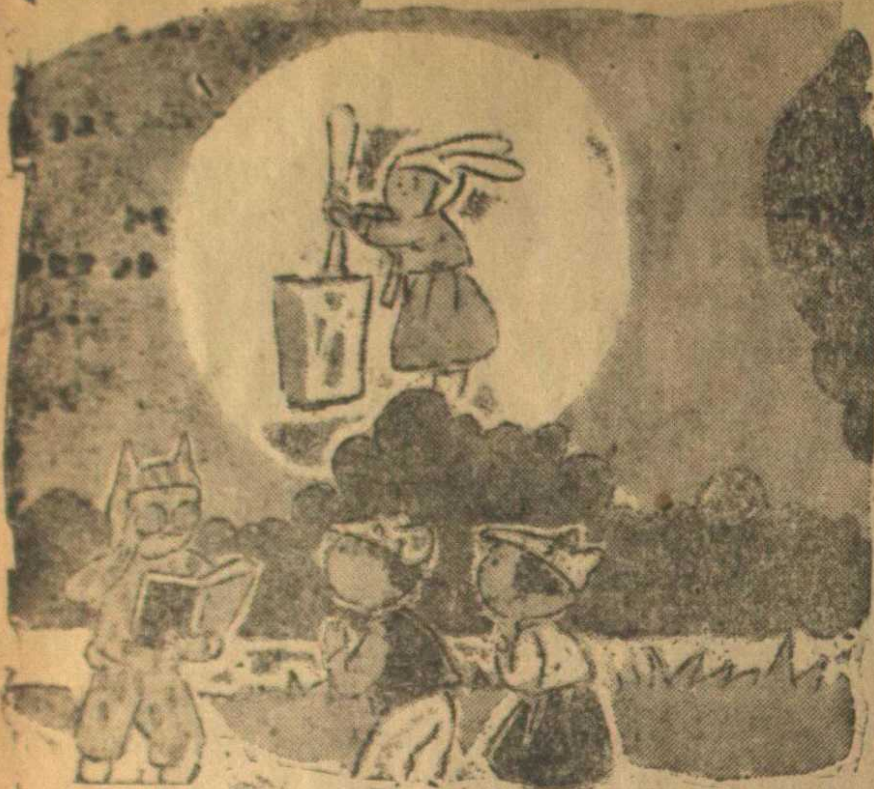
바둑이 그놈어 집 무슨 잔치구나. 그러나 달지기 언제 기다려. 예! 참 달두 참 밝다.

감장이 참 밝지? 이것아 이 좋은 밤에 이제문 바보처럼 참

만 자?
 바둑이 엄마가 와서 저 달빛을 쳐다보구 환함 쳐마나지 얘기 하는 꿈을 내가 방정맞게 했 어.
 감장이 참 너 얼가 켄 일이 나? 어러 날 안왔지?
 바둑이 (걱정되는 얼굴로) 글세. 어더 아픈가?
 감장이 아나. 오날은 꼭 너 엄마 올러니 봐라.
 바둑이 어러 날 못보니까 적보 구 싶다. 참스문 좋겠다.
 감장이 와. 꼭 와. 꼭 올러니 봐라. 그때 내 얼본 가서 맛있 는 고기 많이 좋치다, 우리 너 엄마 오는 저 고게 터까 지 마중 나가 자. (잠 뒤고 돌아 들어 가며) 내 내 얼본 올려.
 바둑이 참말 엄마가 왔스문 좋 겠다.
 왼쪽 벌러서 게 짓는 소리 들 려다.
 바둑이 응! 누굴까? 엄만가?
 감동이 명 명 바둑아. (귀 나 손다)
 바둑이 아유 엄마. 참말 엄마네. (마주 나가서 실종이 손을 잡는다)
 신동이 바둑아 잘 있었니?
 바둑이 엄마 왜 안왔우? 어더 아렸우?
 신동이 아나 잘 있었다.
 바둑이 벌. 엄마 얼굴이 나른게. 엄마 저기 가 앉읍시다. 다리 아프겠우.
 신동이 오나 앉아서 얘기하 자. 감장이 무 잘 있니?

바둑이 응 곧 올길. 엄마 오날 밤엔 꼭 올거마구, 지금 나하 구 얘기하다가 고기 좋치러 갔어.
 신동이 남의 깃 차꾸 좋치문 나 뜨지 안니?
 바둑이 그렇지만 그늘어 집은 저번 복달 우리 등무 잡아먹 은 집야. 견알아.
 신동이 흥! 이 등치무 한 가치 구나.
 바둑이 왜? 엄마. 엄마 등치무 누굴? 참 별이 또 복달인기 누굴 잡아 먹는때우?
 신동이 아 아 아나 아나. 견한 말야. 만 얘기하 자.
 바둑이 왜 그러우? 엄마 이상 무 하마. 참 엄마네 견집 간 있우?
 신동이 흥! 잘 있긴 잘 있지. 애 바둑아.
 바둑이 응?
 신동이 너 너집에 선 널 아직 귀 어워 하니?
 바둑이 그럼 귀어워하지. 왜 엄마 네?
 신동이 아직 던 집어지 차냥 잘 하니만 아직 귀어워 하지 만—.
 바둑이 왜 엄마네 엄마 구박하 우?
 신동이 아나 아나 그만 무구 만 얘기하 자.
 바둑이 이나. 오날 밤엔 엄마가 엄만해 무 이상해. 얼굴 빛투 나쁘구 무슨 근집이 있나봐.
 신동이 아나 아나 근집이 무슨 근집.
 바둑이 그리지 만구 얘기해요.

신동이 (슬픈 목소리로) 바둑아.
 바둑이 응?
 신동이 너 엄마 다시 못보문 보 구 싶겠니?
 바둑이 그럼 보구싶지.
 신동이 아나 아나. 견한 말했다.
 바둑이 그리지 만구 근집있스문 말해요.
 신동이 말하마. 오나 말하마. 나중에 무 알문 네가 애미 월 망할때구; 더 슬퍼할테니 말 해 주다.
 바둑이
 신동이 엄만 오날 밤 널 마지막 보러 왔다.
 바둑이 왜? 견집 번비무 이사 가우?
 신동이 아니만다. 엄만 엄만... (말을 못하고 운다)
 바둑이 엄마! 엄마 왜 그러우? 올지말구 어지 말해요.
 신동이 (눈물을 젖고) 엄마가 함었다구...
 바둑이 함었스문 어때?
 신동이 함어서 기운없스문 내 차 냥 무 잘 못하구 그리니 견 견 집이서 벌 벌 엔 복달...
 바둑이 엄말 잡아 먹는단 말 유?
 신동이 그렇단다. (운다)
 바둑이 (번덕 일어나서 주먹을 쳐들고) 안돼, 안돼, 엄마 죽스문 안돼. 왜 죽어. 왜 죽어. 내가 갈테야, 가서 그늘어 견 집 견 물어 죽일테야.
 신동이 슬레 없는 소리다. 사람 을 어떻게 이기니?
 바둑이 그럼 엄마 가지 달라.
 신동이 여기는 사람 없니?



바둑이 그려두 나라구 살문...
신동이 녀집 권은 사람 아니라
든.

바둑이 그림 엄마 나두 엄마처럼
함 읍으문 우리 집 권두 날?
신동이 마참가지다. 사람은 다
아 그렇단다.

바둑이 그림 배나뭇집 권이나,
엄마집 권처럼 사람은 모두가
나쁘단 말이지?

신동이 사람이 나쁘대두 소용
없구 육해두 소용 없다. 너
마지막 봤으니 자아 난 간다.
잘 있어라.

바둑이 안돼, 안돼, 가문 안돼.
신동이 권집 문 달을 떠 뻐다.
그 안에 가야 할다. 자아 잘
있거라. (왼쪽 걸르 간다.)

바둑이 안돼, 안돼, 가문 안돼.

바둑이는 두어 길을 엄마를 찾
아 가다가, 수족 서서 팔장을

끼고 무슨 생각을 한다. 감장이
가 고기를 들고 야아옹 하고
나와서 바둑이를 함참 본다.

감장이 너 왜 그러니?

바둑이 (감장이 쪽으로 팔러 들
아 서며) 애 감장아, 이걸 어
떻거니?

감장이 뭘때에 그러니?

바둑이 엄마가 왔다 갔어.]

감장이 왜? 왜 갔어?

바둑이 죽으러 갔단다.

감장이 (놀라서) 죽으러?

멀리서 부영이 우는 소리가 들
린다.

바둑이와 감장은 잠깐 동안
말없이 마주 보기만 한다.

바둑이 엄마 권 집서 엄마를 열
목날 잡아 먹는다느구나. 어
찌문 좋나?

감장이 큰일 났구나.

바둑이 널 처가 많으니 엄마가

죽지 않을 피를 생각해 봐라.
감장이 어찌야 좋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응 참 이렇게 하
자. 저기 부영이가 운다. 이
고기를 가지구 부영이한테
루 가자. 부영이는 지식이
많구 육십두 많다니깐 이 고
기를 주구서 너엄마 살아날
피를 가르쳐 달래자.

부영이가 왼쪽에서 나온다. 길
다란 지팡이를 잡고 걸음 안
을 쓰고 두꺼운 책을 벗장이고
가슴에 끼었다.

부영이 부영 부영. 어려운 일이
면 누구든지 물어라. 부영 부
영. 슬픔과 고통과 모오른 어
려운 일을 쫓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이 책 속에 있느니라.

바둑이 (부영이 앞에 걸어 앉아)
부영이 선생님.

감장이 맛있는 이 고기를 드릴
게. 바둑이 엄마를 구해 주세
요.

부영이 (고기를 받으며) 오 오
호호호호.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이 맛있는 고기를 먹
고 나면 바둑이 엄마의 고통
을 없애 줄 수 있지. (고기를
먹는다) 어! 맛있다.

바둑이 가르쳐 주시오. 가르쳐
주시오.

부영이 어 죽는 것은 병들어 죽
는 것과 남을 위해 죽는 것과
두 가지가 있다. 그렇다. 소
와 양과 개와 돼지와 그러한
동물은, 세상에 날 때부터 사
람을 위해서 살구 사람을 쫓
해서 죽기로 작정된 것이다.]

바둑이 (성난 목소리로) 어요?

감장이 (성난 목소리로) 어째요?

부영이 (지팡이로 바둑이와 감장을 막으며) 자자 잠깐. 그런데 병들어 죽으나 남을 위해 죽으나 죽는 것은 피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 피로움도 죽고나면 없는 것이니, 바둑이의 엄마 신봉이도 지금은 피롭지만, 죽은 후에는 그 피로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단 한시간이라도 빨리 죽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둑이 어째?

바둑이와 감장이가 부영이에게 달려들어 때리고 할퀴었다.

부영이 어어 이거 무슨 짓이고. (도망한다)

감장이 분해 죽겠네. 그놈어 자식 고기를 제히 썰지.

바둑이 아니다. 인제 난 우리 엄마 내가 살리려 갈테다. 그놈어 썰 물어 죽이고 엄마 살려 올테다.

감장이 안돼. 그럴겐 안돼. 사람을 어떻게 이겨. 가만 있어. 내 또 좋은 생각할께. 울지 쟤다. 이렇게 하자. 달나라 달토끼 아주머니한테 물어 보자. (달있는 쪽으로 가서는 소리모) 달토끼 아주머니.

달토끼 (절구질을 그치고 내려다 본다)

감장이 달토끼 아주머니.

달토끼 오오 가만 있어. 내 내려가자.

달토끼가 절구쟁이를 어깨에 메고서, 달 속에서 나와서 내려

온다.

달토끼 가엾어라.

감장이 아주머니.

달토끼 알았어. 알았어. 달 속에서 내려다 보고 난 다 알았어.

감장이 바둑이 엄마를 살려주세요.

달토끼 응 살려주지.

바둑이 토끼 아주머니 정말?

달토끼 그럼 정말이지. 살게 할테니 내말 꼭 들어야 돼. 그러구 놀라지부 말구.

바둑이 네. 아주머니 말대로 할게요. 뿔이든지 뿔이든지.

달토끼 그럼 자하 가만히 기다려.

멀리서 산짐승들의 노래가 들린다.

달토끼가 절구쟁이를 쳐들고 휘파람을 걸게 본다.

달토끼의 휘파람 소리를 따라서 산짐승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언덕으로 내려 온다.

산짐승들 (노래)

밤 밤 깊은 밤
달두달두 밤네
춤추기도 좋구요
노래하기 좋구요.

밤 밤 깊은 밤
달두달두 밤네
포수들도 없구요
사냥개두 없구요.

산짐승들은 오른쪽에 줄이서고, 바둑이는 왼쪽 달토끼 휘파람에 숨어 선다.

감장이는 나무술 속으로 들어가서 알뜰게 일갈만 내놓고 있다.

사 슴 달토끼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달토끼 달이 밝으니깐 잘들 노는군.

이 리 저기 사냥개 바둑이가 있다.

살렘이 저것이 우리 엄마를 물어 죽였다.

노 루 저 바둑이 애미가 내 동생을 죽였다.

여 우 자아 가만히들 있어라. 오늘 밤엔 우리를 동무가 굉장히 많으니, 자아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여것이 (사슴은 가만히 있고) 울다. 그러자 원수를 갚자.

여 우 그럼 누가 저놈어 바둑이를 우리들 앞으로 잡아 내올테냐?

이 리 (뿔내며) 내가 잡아 내올테다. 달토끼 아주머니 비키세요.

감장이 저를 어찌나.

살렘이 비키 주세요.

달토끼 그대 모두들 원수를 꼭 갚아야만 해?

여럿이 (사슴은 가만히 있고) 그럼요.

달토끼 그런데 이 바둑이가 원수란 말이지?

여럿이 그럼요.

달토끼 그런데 이 바둑이가 원수가 아니라면?

여럿이 왜 아네요. 왜 아네요. 달토끼 아니다. 정말 원수는



바둑이가 아니구 사람의 맘
아.

여럿이 사람두 원수구 바둑이두
원수예요.

달토끼 아냐. 내 말 들어요. 사
람은 모두들 산동무들의 원수
고, 또 이 바둑이한테두 원수
란 말예요. 이봐요. 사람은 저
피들을 위하는 소나 개를 심
전 부려먹고 잡아먹지 않아요?
그러서 이 바둑이 엄마
두 그런 집에서, 널 아꼈에
잡아 먹는데요. 바둑이와 바
둑이 엄마는 지금까지 사람
한테 죽고 있었어요. 정말은
바둑이와 바둑이 엄마는 산동
무들을 미워할 것이 아냐.

사 슴 그러니깐 달토끼 아주
머니 저 바둑이하구 바둑이
엄마를 어떻게 하문 좋을까
요?

달토끼 바둑이와 바둑이 엄마가

다시는 사람에게 죽지 않도록
해야 해.

사 슴 어떻게요?

달토끼 바둑이와 다시 동무가
돼서 바둑이 엄마를 구해 주
고, 다신 사람한테 있지 않도록
해야지.

바둑이 (산짐승들 앞으로 나서
며) 잘못했다. 나하구 우리 엄
마가 못났었다. 우리를 용서
해줄 수 있겠냐?

달토끼 그러구, 바둑이는 재주
가 있구 영리하니, 다시 산
동무가 되문 사냥군이 오는
것두 잘 알구, 그러니깐 다시
는 사냥군한테 산동무가 잡히
지두 않을게 아냐?

바둑이 지금부터는 나는 옛날
산동무들을 위해서 일을 할테
다. 난 잘못된걸 알았구, 나
쁜 것을 알았다.

사 슴 여러 동무들 어떻게 생

각하지? 난 달토끼 아주어
니 말을 좋게 하는데.

여럿이 글썽?

여 우 그러니 달토끼 아주어
니. 바둑이 엄마를 어떻게 살
리나요?

바둑이 내가 가서 달토끼 아주
머니가 부르다구 같이 올테
니.

달토끼 바둑이 엄마가 소저면
같이들 산으로 가서 옛날처럼
동무가 돼요.

바둑이 그렇게 래디슈? 여러 동
무들.

김장이 (언덕 아래로 내려 오며)
그렇게 하문 나무 산으로 갈
테다. 바둑이 따라서.

달토끼 암, 김장이두 그래야지,
저 살랭이하구 옛날엔 힘지
였어. 자아 그럼 바둑이하구
다시 동무가 돼서, 어찌 오날
밤 새기 전에.....안그려운 모
두들 바보야. 그러구 산그려
문 난 다시 산 속에 밝은 달
도 비쳐주지 않을테니.....

사 슴 그러자 동무들아.

여럿이 그러자.

바둑이 고맙다. 고맙다. 고맙
다. 자 내 엄마 부르려 갈게.
사 슴 아냐. 우리들이 모두
같이 가야 한다. 자 같이들
가자.

달토끼 그래 내 달빛을 비춰줄
비쳐줄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내가 앞장 서지.

김장이 내 먼저 탈리 가자 바
둑이 엄마 불러낼테.....(아아
용 하구 빨리 왼쪽으로 내간
타)

우리 나라에서 수학(數學)을 누가 제일 처음 배웠나?

유 일선(柳一宣)선생

조 용 만

말년에는 우리 나라에서 학문을 한다는 말이 하면, 으레히 한문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아 왔읍니다. 한문을 읽고, 외이고, 새기고, 또 짓고 하는 것이, 그 때에는 하나 밖에 없는 공부이였읍니다. 지금 여러 분이 배우는 산술이란 것은 없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부터 학교란 것이 생기고,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산술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술이란 아라비아 숫자(1,2,3,4)를 가지고, 겨우 쉬운 가감승제(加減乘除)를 배우는 정도이였읍니다. 그러면, 대수(代數)나 기하(幾



何)나, 또는 미분(微分) 적분(積分)같은 고등수학은, 누가 제일 먼저 배웠겠습니까? 그 어른은 유 일선(柳一宣)선생이십니다.

유 선생은 1879년 서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유 선생은, 열 여섯살 적에, 경성학당(京城學堂)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산술을 배웠읍니다. 그 때 모두들 한문글 읽는 습관이 박혀, 산술 같은 것은 좋아 하지 않고, 따라서 별로 재미를, 붙이지 않았읍니다. 그러던 때에 유 선생만은 산술에 큰 흥미를 느끼고 놀라운 재주를 나타냈읍니다. 선생보다도 산술을 더 잘 한다는 소문이 높아서, 그 학교 일본 선생 하나가, 재주를 그대로 썰하기가 아깝다고 하여, 동경으로 유학가기를 권하고, 또 학비나 여러 가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등경에 건너 가서 물리학교(物理學校)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수학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인데, 입학하기가 꽤 힘든 학교이였습니다. 선생은 이 학교에서도 공부잘하기로 유명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스물세 살에 졸업하셨습니다.

졸업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남산골(南山洞) 자기 집에다가 방 한칸을 짓고, 수학을 전

문으로 가르치는 정리사(精理舍)라는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01년이였습니다. 남산골 초가집 방 한칸에 조그만 칠판을 걸고, 어둡컴컴한 "암고"를 밑에서, 유 선생은 열심히 대수를 가르치고 기하를 풀어 주었습니다. 모여드는 제자는 태여섯...함으로 수학을 배우고 싶어하는, 향락열에 불라는 젊은 학도들이였습니다. 이 제자 중에는 지금 국립서울 대학 총장으로 계신 최 규동(崔奎東)선생, 수학 선생으로 유명하신 안 일영(安一英)선생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정리사 야학교는, 차차 기초가 잡혀가서, 집을 청진동(淸進洞) 지금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자리로 옮기고, 야학을 주학으로 확장하고 학생을 더 많이 뽑았습니다. 이리하여 수 많은 수학자들을 내놓아, 근대 조선문화에 큰 공헌을 끼쳤읍니다.

선생이 수학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하였다는 것은, 아래 이야기로 알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수학 문제가 생각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다가 써가면서 풀어 가는데, 나중에 끌고 보니까, 길을 지나 남의 집 대문간을 넘어들어 가서, 대문간 넓은 땅을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수학을 쓰고 있었더랍니다.

선생은 돌아가실지가 10년 밖에 안되었는데, 그 때까지도 수학공부를 지속하고 계셨습니다.

바둑이 나두 가자 나두 가자.
(삼장이를 따라 나간다.)

팔로끼가 앞장을 서고, 여러 선장승들이 무대를 돌면서 노래 부른다.

어릿의노래
밤 밤 깊은 밤
달두달두 밝네
종구종다 이밤에
등무하나 열었네.
밤 밤 깊은 밤

달두달두 밝네
종구종다 이밤에
옛동무와 춤추자.

노래를 두어면 피우려하면서 무대를 돌아서 원쪽으로 어릿이서 나갈 때 막이 내린다.

동요 맛보기

(6) 박 영 중

이 달은 여러 분의 작품을 살펴 보기로 합니다. "소학생"에도 바깥이 으레편이 넘는 여러 분의 동요가 들어 옵니다. 그 중에서 앞편 것은 그대로 "소학생"에 실려 쓰리는데, 후리고 남은 것 가운데 몇 편, 어디서 잘못 되었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참된 느낌을 노래하지 않은 것,

봉실봉실 꽃밭에 꽃이 피고요
 휘늘어진 수양버들 고개를 들
 제
 차고 매운 겨울바람 보낼 지
 고서
 북쪽나라 멀리멀리 가버린대
 요.

(봉래 국민 학교 장 진희)

얼른 읽으려면 그럴듯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차고 매운 겨울 바람 보낼 지고"는 참으로 자기가 열심히 느낀 것이 아니고, 그러려니 하고 머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람이 어떻게 보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둘째,

"봉실봉실 꽃밭에 꽃이 피고요, 휘늘어진 수양버들 고개를 들 제"도 멋있게 지은듯한 노래입니다.

봄이면 으레히 봉실봉실 꽃이 피는 것쯤, 누구나 다 아는 것이며, 더욱 버들이 가지가지 늘어지는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금덩어리가 흙보다 소중한다는 것은, 금덩어리는 흙보다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요도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동요가 귀한 것은 지은 사람만이 느끼는 것, 그것이 귀합니다. 누구나 다 으레히 생각하는 것이야, 종이에 적을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그럴 아무도 못느낀 것을 자기만 생각했으면 다 좋은 동요냐고 물으실래지.

그런 것도 아니지요.

꿀꿀꿀꿀 뱀지는 동동보라오
 밥찌꺼기 흙물에 말아먹어도
 뱀지는 꿀꿀꿀 동동보라오

(성동 국민 학교 김 경)

찌꺼기 밥을 먹어도 뱀지는 살만 주둥 주둥 건다는 것입니다. 뱀 재미있게 보았는 것 뿐, 읽는

사람에게 아무런 즐거움도 이름
 다움도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부다 생각할 뿐입니다. 생각는 것 뿐이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노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이라는 것은 뭐냐?

교실에 모이면
 조로롱 조로롱 재밌다
 우리 동무 재밌다
 조로롱 조로롱 배우자.

이 노래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 보세요.

조로롱 조로롱 재밌다. 1

혹은

조로롱 조로롱 배우자. 2

의 조로롱 조로롱은, 아무런 뜻도 없으면서 여러 분 마음 속에 무언지 모르게 즐거움을, 또는 가벼운 기분을 자아냅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조로롱 조로롱의 말이 가진 비밀입니다.

말이 가볍고 경쾌해서, 여러 분 가슴 속에 어둠이 있는 가벼운 마음을 방울흔들 듯 흔드는 비밀을 가졌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 읽을 수
 다.

어떠하던 무엇이든 해서 꼭

★ 무엇이 틀렸을
 까요? ★
 동무끼리 맞추어
 보십시오



만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거 보다 그 동요가 얼마
나 분위기나 기분을 잘 나타내
었다가 더 큰 내용이 됩니다. 가
령,

작년 봄 일찌기
다녀서 가신,
바늘장수 할머니는
왜 안오실까,
떡에다 이리 저리
그이 두고 간
바늘값 그림은
검정 지는데.

(작년 봄·신 고충)

이 노래에서는 바늘장수 할머
니 바늘값 그림이 검정이 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산 골짜기
아기들의 외롭고 심심한 마음이
더 절실히 나타났습니다.

눈 나라 눈 손님이 내려 왔
다네
우리들은 환영하러 나갑시다.
눈 손님이 하얀 선물 가져왔
다네
하얀 선물 받으러 어서 갑시
다.

(평을 국민 학교 홍·종만)

이 동요 역시 약간의 거짓이
섞였습니다. 참으로 여러 분은
눈 손이가 평평 오는 것을 보고,
하얀선물 가져왔다 해서 그것 받
으며 밖으로 뛰어 나갑니까?

거짓이겠지요.

눈이 평평 쏟아지면 무언지 모
르게 기뻐서 그냥 밖으로 뛰어갑
니다. 그러고는,

받아 먹자
아아아
눈 송야들
받아 먹자
아아아

하며 툇처럼 달릴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참된 것이냐.

유리창이
빛나네
고기 비늘처럼

빛나네
(하서 국민 학교 김 도일)

이것입니다. 하서가 어떤지는
모르나, 아마 바다 가까운 국민
학교이겠습니까. 아침 햇살에
학교 유리창이 반짝 반짝 빛납니
다. 얼른 보니 고기들의 비늘처
럼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꾸미려 들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일 때, 금방 느끼는 것(直感)
그것을 얼른 잡아야 합니다.

나무 잎 위에
이슬이
숨었구나.

(대촌 국민 학교 박 용필)

밤 사이 은 이슬이, 아침 해가
솟자 어디로인지 달아나고 말았
습니다. 아기가 가만가만 뒤져보

니, 나무 잎사귀 위에 대롱·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생 (XISTE)을 하듯 적
어보는 것은, 여러 분으로써 가장
쉽고 바른 동요의 길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좀 더 익숙하면,

축 나거라
분꽃 씨
하룻밤 자고
하룻밤 자고

축나거라
분꽃 씨
(대구 칠성 국민 학교 아동
작품)

여러 분의 조그만 소원을 노래
해도 좋습니다.

꿈을,
그리움을,
안타까움을,
노래하기 전에 붓대를 툇툇
잡고, 눈 앞에 보이는 것을 사생
부터 합시다.

꽃 잎 위에
꽃이 싸였네.
도란 도란
얘기하는 형제처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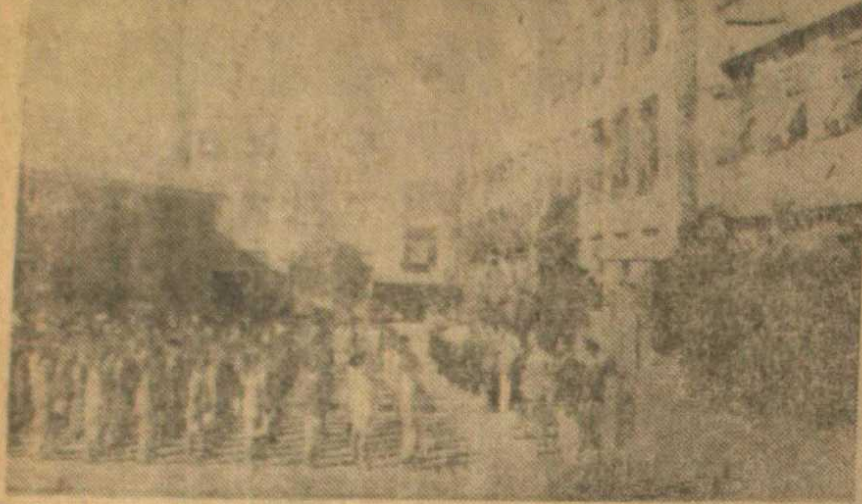
기차가
지내갔다.

열기만 남았다.
한참 혼자서 놀다가
스르르 사라졌다.

-계속-



우리 학교 작품



4238년 9월 1일 수하로 보았을 때
 로 찾았을 때였고, 이나라 어린이들
 여 힘써온 이 학교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여덟 학교중의 하나로
 4274년 4월, 지금의 청계 (淸溪)로 교
 명을 고친 후, 44년이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어린이들을 문에게 키워온 학교이
 다. 지금은 교육사업에 열렬하신 최 수
교장 선생님과, 최 백 규 원 선생님과
 에서, 26명의 선생님과 1820명의 많
 은 생도들이, 한심 한곳으로 단결하여, 이
 나라 학교의 전통 (傳統)과 이나라의 영광
 위하여, 명량하게 학문의 길을 가고 있
 니다. (기자)

제9회 서울 청계 학교치



동요 봄나비 한쌍

5학년 윤 정 로

목사꽃이 가득 된 우리 마당에
 봄나비 한쌍 날아왔어요
 그은 날개 펴고 펴고 날아왔어요.

목사꽃이 가득 된 우리 마당에
 봄나비 한쌍 날아 왔어요
 목사꽃에 앉아잠들었어요.

목사꽃이 가득 된 우리 마당에
 봄나비 한쌍 찾아왔어요
 목사꽃이 그리워 찾아왔어요.



통요 구름

5학년 배 인 숙

구름이 두둥실 힘없이 흘러가며
 천구를 걸은구름 아롱지어 돌
 러가네
 나도 나도 구름이 되어가지고
 온세상을 구경하며 돌아다니 뵈
 으면!

작 문

만 원 전 차

5학년 이 덕 순

이날 저녁에 등부를 끌고
 가고 덕순아 어머니께 팔리 겠으
 도 가라. 하시니 삼생님의 말을
 듣고, 등부들과 꼬문을 나서 경
 무정으로 가보니, 멀리서 전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나는 버리가
 타야 할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옆에
 섰었습니다. 모인 여러 사람들은
 너무 너무 겁으로 팔리 갈 용심으
 로, 목을 길게 빼고 가까이 오는 전
 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원이
 되어서 온 전차는 뒤를 돌려서 사
 람의 몸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왔
 습니다. 좁은 몸을 타지 버리지 않

뒤로 나오는 사람들, 틈을 타서 끼어들어가는 사람들, 무정한 전차는 차츰 차츰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힘있는 남자들이 막 배달되는 바람에 나는 밀려서 멍하니 떠나가는 전차만 바라보고 있었습시다. 지팡이를 잡고 계시던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으시면서, "형, 사람들이 그러람"하고 웃을 틈도 없습시다. 할 수 없이 걸어

가려고 할 때 어 들을 때치고 전 차판에가 또 완 습니다 그 차 는 웬일인지 텅 텅 비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타고도 남았습니다. 나는 창 옆에 서서 잤습니다.

광화문까지가 너 더지게 만원이 되어 움직일 수도 없게 꼭 끼었습시다.

"아얏"하고 소리를 치더니 "눈이 없나? 왜 발을 밟어."하는 여자의 목소리, 다음차 타라는 차장의 소리, 내린다고 떠드는 소리, 이 소리 지소리로 차안은 시끄러웠습니다. 겨우 겨우 떠나기 시작한 전차에서 "악"하는 소리가 중간중간에서 나드나, 쓰리요 쓰리, 소백지기로 하고 떠드니까 "제기 채수 더럽다. 기분 나쁜걸, 수지 않맞는다."하고 제각기 한마디씩 떠

드는 바람에 차안은 소란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차가 우뚝 섰습니다. 뒤미처 순사가 와서 차안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몸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리는 찾지를 못하여 그냥 움직이



었다. 겨우 서대문에 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내리기가 큰 걱정이 되어 서 가운데 문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가기 시작할 적에, 가방과 가방이 꼭 끼어서 탁하고 내가 방 끈이 풀어졌습니다. 그러자 불이 탁 꺼지더니, "정전 정전"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어른들 틈에 끼어서 잠잠한 창 밖을 내다보았습시다.

작 문

밀 국 수

4의4 박 용 일

우리 집에서는 요사이 저녁은 가끔 밀가루로 만들어 먹습시다.

어지게 저녁 때는 밀국수를 만들어 먹었습시다. 만들 때는 아버지만 안만들고 모두 합니다. 언니와 나는 방망이도 밀고, 어머니는 칼로 가늘게 썰고, 장난군이 내 동생은 어머니가 썰어논 국수를 퍼서 불지 않게 합니다. 말도 안하고 우리들은 열심으로 하였습시다. 장난군이 동생은 한참 하다가 싫어 지나가, 강아지, 말, 소, 닭, 그릇을 밀떡으로 밟습니다. 내가 동생 얼굴을 보니까, 머리와 눈썹 코에까지 밀가루가 묻었겠지요. 내가 막 웃으니까 어머니와 언니도 막 웃었습시다. 크리스마스 썰라크로스 할아버지 같이 뽀뽀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나를 보고 막 웃기에, 일른 가서 거울을 보니 나루 많이 묻었습시다. 국수를 다 태놓으니까 동생은 젓가락 한 짝을 가져오더니, 뜨거운 국수를 막 저면서 이까 만든 강아지와 말을 찾아 말라고 막 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찾아 주니까 좋아서 웃었습시다.

삼 일 은 동
독 립 선 언

습 자 5의4 박 리 숙



도화 6의2 이 눈 규

피노치오

디즈니 * 그림
작은 톰 * 역함



마차는 언덕 길을 달리 내리 갑니다. 피노치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칠 사이 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헛허, 학교에 갔더라면 좋았을 걸. 어른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걸.” 이 때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일제히 들더니 늦었어 늦었어.”

하고 찌미너의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찌미너, 찌미너, 넌 지금 어디 있니?”

소리치며, 피노치오는 머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마차 뒷쪽 피노치오가 머리를 들고 바라보는 자리에 찌미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오, 찌미너야, 대체 이 노릇을 어떻게 할 동안 말이나.”

마차는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을 지나서.....

그러자, 문득 보니 한 노인이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 노인은 곧 제페토였습니다. 제페토는 피노치오를 보고 외쳤습니다.

“피노치오야, 집으로 가자꾸나.”

피노치오는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쳤습니다.

“나를 나가게 해 주세요. 난 나갈테어요.”

지금까지의 대강 이야기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제페토라는 의로운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는 핀카토라는 고양이와 클레오라는 금붕어와 같이 살면서, 나무토막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팔아 살아가고 있었습니. 그리고 늘 소원이 아글 하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제페토는 나무로 인형을 만들고 이름을 피노치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자 어느날 밤, 제페토가 잠이 들었을 때, 하늘에서 푸른 빛을 입은 선배가 내려와서, 피노치오에게 목숨을 넣어 주었습니다. 피노치오는 산인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람이 된 것을 아느냐. 피노치오가 앞으로 취한 일을 많이 하면 정말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선배는 약속했습니

다. 때마침 거기 있던 귀뚜라미 찌미너가 선배에게 말하기를, “제가 피노치오의 동무가 되어서 취한 아이를 만들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제페토가 잠이 깨어 이것을 알고 몹시 기뻐하면서 피노치오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피노치오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육십 많은 여우와 도둑망이에게 속아서 그만 스트렐블리라는 사람이 이끌고 다니는 연극단에 끌려 버렸습니다. 피노치오는 찌미너의 이르는 말도 안 듣고, 무대에서 매우 노릇 하는 것을 좋아하다가, 마침내 자기 끌려 온 것을 알자 그곳을 빠져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트렐블리는 피노치오를 새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5

새장 속의 피노치오

스트렐블리는 피노치오를 가둔 새장을 마차에 얹었습니다. 다른 인형들도 마차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다란 마차에 경총 뛰어 올랐습니다. 마차는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차는 여전히 가
만 하였습니다. 마침내 마차
는 마을을 떠났으며, 따
라서 제
페로에게
서도 멀
어졌습니다. 마차는
자꾸자꾸 가만 합니
다.



제미너는 새장 위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습니
다. 피노치오는 새장 속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
다. 제미너는 들창으로 마차 밖을 내다 보았습니
다. 이 때에 제미너는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별
하나를 보았던 것입니다.

“희망별님이다!”

제미너는 모르는 곁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
자마자, 금방 마차 속에 어느 틈으로 들어 왔는지
그 푸른 선녀가 와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피노치오야, 웬 일이냐? 어디 내게 말해 본
?”

“제가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길 가에서 피상
하게 생긴 것들을 만났어요. 이 놈들이 달려들
어 저를 붙들더니, 저를 자룻 속에 쳐 막고, 자
루를 팡 팡 쳐 뺏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까지 말했을 때, 갑자기 피노치오는 말을
뚝 그치고, 코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 봐, 코가 걸어지네.”

피노치오는 울상이 되어 말하였습니다.

선녀는 본체도 안하고, 두 눈이 흐려졌습니
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피노치오야, 어서 말해 본? 그래 어찌 되었더
란 말이냐?”

피노치오는 대답했습니다.

“제가……제가……전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난데 없는 커다란 괴물이 나와서 저를 자룻속에
쳐 막았습니다. 저를 막 때리려구……”

또다시 피노치오의 말은 뚝 그쳤습니다. 또다시
코가 부쩍 들어났습니다.

이 때에 그 아름다운 선녀는, 조용히 일렀습니다.

“피노치오야, 넌 아마 참말을 하지 않는가부다.”

“왜요, 전 참말을 했는데요……”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코는 또다시 부쩍 들어났
습니다.

이윽고 피노치오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당한 일을 모조리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엔 참말만 하였습니다. 차근차근 그 동안 제가 한
일을 푸른 선녀에게 조금도 거짓 없이 고스란히
고해 바쳤습니다.

마침내, 선녀의 고운 눈초리가 반짝 하고 빛났
습니다. 예쁜 입이 방긋 하고 웃었습니다. 선녀가
피노치오에게 슬쩍 손을 대니까, 피노치오의 걸다
란 코는 먼저대로 들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상도 하지요. 피노치오는 새장에 있
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노치오는 스트롬볼리의
마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노치오는 마
침내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6

마 차 군

피노치오는 자유로웠습니다.

피노치오는 곧장 학교로 가려던 것입니다. 그렇
습니다. 곧장 학교로 가려던 것입니다. 강중 강중
강중 뛰면서 갔습니다.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습
니다.

그 뒤를, 키투라미 제미너가 대서고.

그 뒤를 다른 두 놈이 대서고.……그 두 놈이란
못된 여우와 도둑쟁이였지요.

“애 저것좀 봐라. 내가 뭘 봤겠나? 저것이 자
네 눈에 두 보이나? 피노치오가 제멋대로 간다.”
이렇게 여우가 도둑쟁이에게 말하였습니다. 도



도둑쟁이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구나. 자네 말이 옳으니. 피노치오가 제멋대로 가네그러.”

“그러나 될수 없네.우리가 또 데리고 갈테니까.” 하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전 뭘하려?”

도둑쟁이가 물었습니다.

“뭘하려라니, 필자 덕장 말이지. 마찰군에게 팔면 은돈 스므 냥은 너군 받을걸세”

“올다. 자네 말이 옳아. 마찰군에게 팔면 은돈 스므 냥은 네 돈 당상일세.”

“노려던 말야. 마찰군은 그렇구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거든 되면 피노치오는……”

“그렇구 그렇게라니?”

하고 도둑쟁이가 물었으나 여우는 대답하려 않고, 찰찰 웃기만 합니다.

그러하여 뱃속 결고 흥척스런 두 늑은, 피노치오를 바짝 대셨습니다. 그제기를 쓰고 뒤를 대셨습니다.

“어디를 가는 길인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피노치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이지.”

“학교에?”

여우는 찰찰 놀라는 기색을 하고서,

“아아니 학교엘 가다니. 아예 그런 소리 말게.

피노치오, 그때 마음이 편한가? 내가 보기에 걱정한지 못한 것 같은데? 그만 뒤. 학교 가서는 큰일나네.”

하고나서, 여우는 피노치오의 눈을 엿보는 것입니다.

“안되고 말고.

농담이 아니라 피노치오는 어디가 불편한 모양일세.”

이번엔 도둑쟁이가 말하였습니다.



“농담이라니 말이 되나. 내가 보기에 피노치오는 병이 난게 빼어난걸. 어디 손 좀 내 댈게.” 피노치오는 손을 내밀었지요. 그랬더니 여우가 그 손을 보더니, 이번엔 딴 손 마저 보았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찰까? 아주 싸느라대? 허이 아주 아주 너무나 싸느라구먼. 어디 입 좀 보세.” 피노치오는 입을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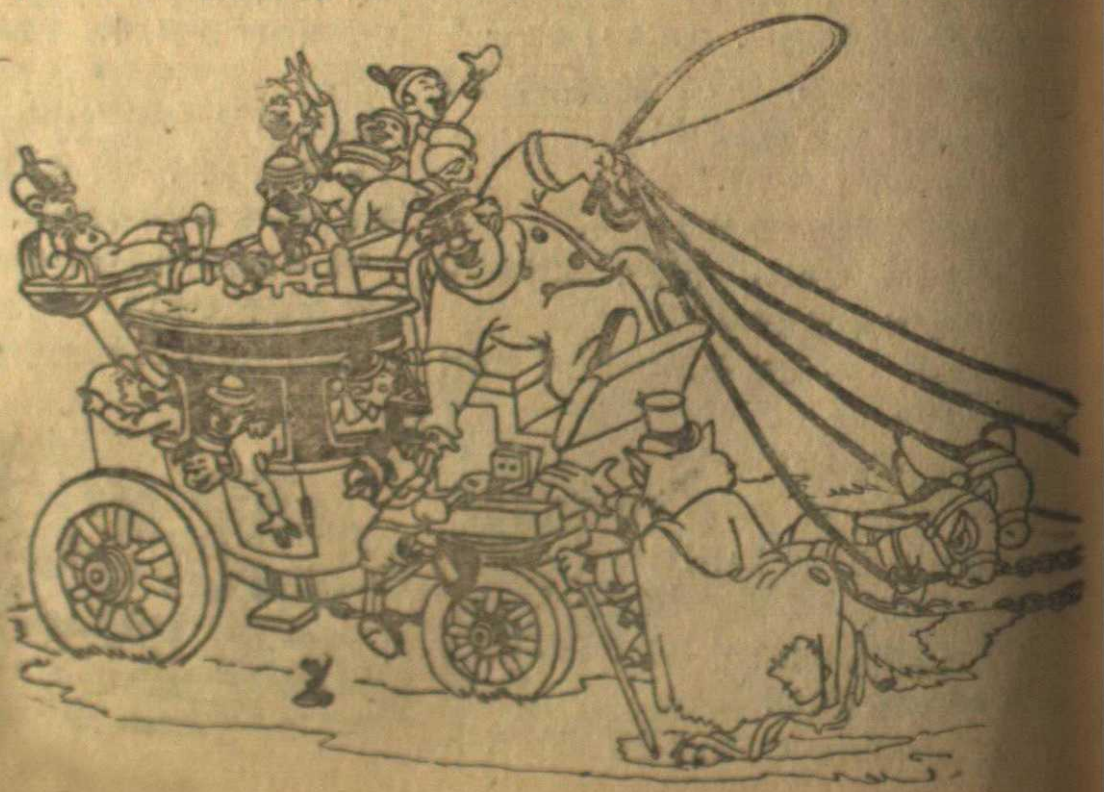
“이이그 이이그 큰일났군. 병두 아주 큰 병인데? 이러구서 학교엘 가다니 뭘번이나 한 소릴가? 이 병을 고치려면 아주 재미있게 편하게 지내는 수 밖에 없네.”

여우가 이렇게 말할 때, 도둑쟁이도 덩나바서 말했습니다.

“이르다 뭘인가? 아무렴 그래야지. 첫째 마음 편한 것보담 더 좋은 약이 어뵈나?”

여우는 또 말하기를,

“난 아주 재미다당게 지낼만한 데를 알구 있지.”



“그게 어디에?”

피노치오는 물었습니다.

유치한 여우는 피노치오가 싫다고 할 만큼 도무
주지 않았읍니다. 여우는 만족한 듯이 주먹 질
할 번 하고 나서,

“그게 다른 데가 아니라 기쁨의 섬이지.”

물었습니다.

도둑쟁이가 쥐를 받아,

“여부가 있다. 기쁨의 섬에만 가는 날이면 빙어
취 가지고 갔지.”

그러자, 여우는 절절절절 웃고 나서 말했읍니다.

“기쁨의 섬이란 말 가면 빙만 고치는데 아니라,
사실 천 보다도 더 물이 좋아지지. 암 그렇구
말구.”

피노치오도 이 말에 좋아라고 웃었읍니다. 웃음
의가 무척 컸읍니다. 그러므로, 아주 눈발만큼
웃음소리었읍니다.

이 때에 귀뚜라미 찌미늬는 애걸하었읍니다.

“내 말 좀 들어라. 피노치오야, 제발 가선 안
된다.”

그러나 피노치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읍니다.

은 큰 재미나 볼 줄 알고 있었읍니다. 아주 평
한 재미나 볼 줄 알았읍니다.

그럴 지음, 어느 틈에가 굉장히 큰 마차 한 채
그 앞에 와 섰읍니다. 이 마차를 끄는 것은 말
아니고 나귀었읍니다. 나귀들은 이상하고도 슬
하는 듯한 눈초리로 피노치오의 위 아래를 훑어

봤읍니다.

마차 속에 어린 사람들이 있는 것을 피노치오는
보았읍니다. 정말 사람의 아이들 말입니다. 어린
이들은 온통 웃고 또 그럴듯한 노래들을 부르고
야단이 열읍니다. 피노치오는 그 아이들과 같이
울타 타고 웃었읍니다.

마차꾼이 손을 내밀었읍니다.

“어서 여기 올라 오너라. 어서 여기 올라 오너
라.”

하고 피노치오에게 말하었읍니다.

이 때에 여우는 큰 소리로,

“잠깐 가만 있소. 나하고 셈을 해야지. 그 나무
인형 값이 온돈 스므 냥이요.”

“그래라, 주구말구.”

마차꾼은 성큼 온돈을 여우에게 찢어 주었읍니
다. 그러고나서 마차꾼은 다시 피노치오에게 손을
내밀었읍니다.

찌미늬는 몸이 탐아서 피노치오를 나무랐읍니다.

“계 섰거라. 가만히 서 있어, 안패. 가선 안패.”

그했으나 피노치오는 듣지 않았읍니다. 마차꾼
의 손을 짚 붙들고 뱅글 마차로 뛰어들었읍니다.
마침내 정말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있게 된 것입
니다. 그들은 연방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읍
니다.

다시 화가난 귀뚜라미 찌미늬는 책 들쳐가 버리
고 섰었읍니다. 그러나 이 순간, 피노치오의 절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한 일이 떠 울랐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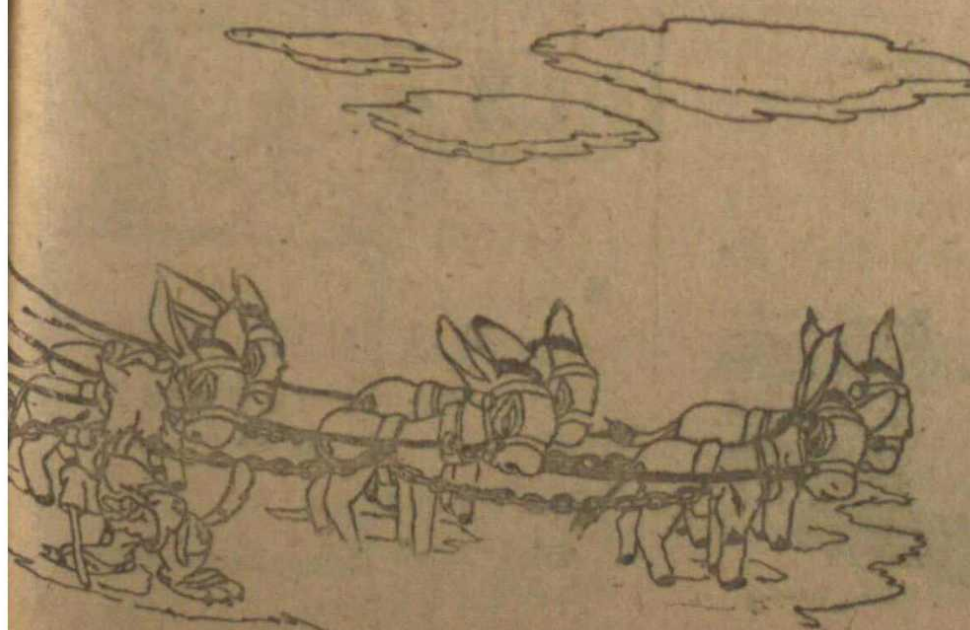
그는 혼잣말처럼,

“나도 따라 가겠다. 나는 끝까지 동무가 되겠다.”
하었읍니다.

그러하여 찌미늬는 마차
뽕무니에 툄 뒤어 울랐읍니
다. 이 마차의 일행은 기쁨
의 섬을 향하였던 것입니
다. (계속)

피노치오는 찌미늬의 말
리는 것도 듣지않고, 여우
와 도둑쟁이에게 속아져 그
기쁨의 섬이란 데로 갔읍니
다. 과연 그들이 간 곳은
기쁨의 섬이었을까요?

재미는 다음달치부터 있
읍니다.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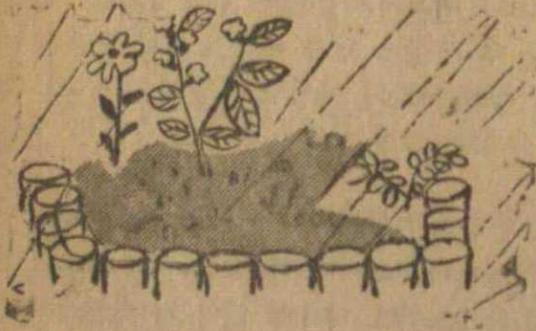
소학생 작품

동요

봄 비

서울 북성 국민 학교
김 한 철

급질비 은질비
줄줄줄 오너라
우리집 꽃밭에
조용조용 오너라.



동요

봄

서울 청운 국민 학교 5년
이 재 각

나뭇잎은 파릇파릇
잔디밭도 파릇파릇
시냇물은 줄줄줄



동요

시냇물

서울 청운 국민 학교 4년
김 종 상

우리 동네 시냇물은
줄줄줄 흘러요.

우리 동네 시냇물은
줄줄줄 흘러요.



동요

작은 시내

서울 수종 국민 학교 3년
이 종 구

학교 앞에 작은 시내
줄줄줄 흐르는 시내
우리 학교 일학년도
놀작 뛰면 건너지요.

☆ 작 문 ☆

귀여운 내동생

서울 창신 국민 학교 5년
정 세 의

우리 집에는 귀여운 동생이 있
니다. 내 동생은 얼굴이 참으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름은
세준이, 세준이는 울애 두 살입니
다. 두 살된 세준이는 놀기를 좋
다고 흥내를 내기 좋아합니
다. 저녁상을 치우고 나면, 집안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앉아 놀기
를 하고, 또 옛날 이야기도 하며
있지요. 내 동생은 집
안 사람들이 모여 앉은 가운데에서,
머리가 하는 것을 보고 그 흥
을 냅니다. 어머니께서 이것을
보고 웃으시며 웃음을 못치시
고,
“참 우리 세준이 잘무 논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동생
은 놀다말고, 제비 입 같은 입
을 하며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
는답니다.

그 때에 아버지께서 “손다우”
하시면, 동생은 영기영기 기이
아버지 앞으로 가서 두 손을 아
버지 손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
러면 아버지께서는

“에에이, 우리 세준이 착하



다.”
하고 말씀하시며 웃으십니다. 귀
여운 내 동생은 웃음직마다, 역시
그 입중은 제비 입중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면
동생은 또 역시 흥내를 냅니다.
우리가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
를 하여달라고 조르면, 할머니께

서는,

“오나, 해주마.”

하시며 옛날 이야기를 맡고 맞
았게 하여 주십니다.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면, 내 동
생은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할머니의 턱밑만 바라보고, 입맛
만 짹짹 다시며 할머니 이야기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서 그것을 보시고,

“아이 꼬것.”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는, 귀여운 동생을 “꽃” 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 집은 저녁 매
가 제일 기쁩니다.

알려 드리는 말씀

“주간 소학생” 31•32•33
호를 삼니다. 과실 분은 뒤
協 “소학생” 編輯部로 오시
든지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
요. 새로 나오는 “소학생”
과 맞바꾸겠습니다.

(편집실)

애독자 아홉 상라기

☆ 36의 수수께끼 ☆



8 9 10 11 13 14 15 16

그림 한 가운
데 12라는 수가
있습니다. 틀 바
깅에 써 있는 8
에서 16까지의
수를 각각 적당
히 틀 속에 넣
어서, 가로 보태
든, 세로 보태

든, 모로 보태든 36이 되게 하여 보십시오. 바
르게 맞추신 분에게는 상을 드리겠습니다.



1등 • 10명 = 동화책과 그림애기책. 1

2등 • 40명 = 그림애기책 한권씩. 1

마감 • 4월 20일.

발표 • “소학생” 6월호.

보내실 곳 • 서울 鍾路2街 永保빌딩. 1

兒協 “소학생” 編輯部.

주의할 것 • 보내시는 분의 학교, 학년, 이름
을 똑똑히 쓰고, 봉투 겉에는 “현
상” 이라고 쓰십시오.

※ 소학생 구락부 ※



▲세월은 흘러 어느덧 재미 날
아드는 봄이 찾아 왔습니다. 그런
때 기자 선생님들 우리 "소학생"
을 편집하시느라고 얼마나 분주
하십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선
생님을 드울까 하고 동요 두편
보내오니 잘 지도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충남 대전부 인동 93 김 하경)

▲나에게는 여러 가지 잡지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 "소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소학생" 잡지책이
유익하다고 끝끝내 보라고 하였
습니다. 지금 몇가지 작품을 보
내오니 여러 선생님들은 부디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원도 강릉 국면교 4의2 이 대식)

▲기자 선생님, 저는 1, 2월치
부터 애독자가 되었어요. "다이
야론드 게임 말판"을 가지고 재미
있게 놀았습니다. 언젠가 언니의
"소학생" 몇권을 빌려다 밤 한식
까지 읽다가, 이튿날 아침시에
일어방서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잡사와 등불을 보내니 잘 지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녕히.
(서울 매동교 4의 5 홍 승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간소학생" 1호부터 보는데,
31호부터 40호까지 매어 놓은 것
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쇄해 놓으

신 것 있으시거든 알려 주십시
요. 여러 선생님들 문편히 안녕히 제
십시오. (서울 종로구 연지동 209
박 병호)

△있을지도 모르오니, 서울 중
로 문장각에 가 물어 보십시오.
(기자)

▲편집부 기자 선생님들 안녕
하십니까? 저는 6학년이 된 뒤
두번째 뵙습니다. 그러면 한 가
지 묻겠습니다. 활자는 누가 발
명했는지? (서울 창천교 6의3
김 상천)

△서기 1450년에 독일의 게에
텐부룩이란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사람이 제일 먼
저 발명했다고도 합니다. (기자)

▲척척박사 안녕하십니까? 오
학년이 되어도 작품모집에 참여
를 못하여 섭섭히 생각하던 차,
이번에 번번중지 못한 척척박사
하나 보내니 고생좀해 보십시오.
안녕히. (서울 방산교 5의 2
장 유훈)

▲여러 선생님 그 동안 안녕하
십니까? 뜻밖에도 장타기에 일
등이 되고, 재미있는 그림책을
받아, 무어라고 기쁜 마음을 나
타내야 좋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 죽겠어요. 그림 이만
그치고 안녕히 재십시오. (전북
남원 윤봉 국민교 4년 박 응용)

▲저는 요번 "소학생" 작품을 모
집을 보고 번번중지 못한 습자 한
장 보내오니 받아 보십시오. 이
것으로 몸전장을 비우고, 잔탄하
나마 붓을 놓겠습니다. (강원도 강
릉 현남면 인구 배배당내 박성재)



★봄바람은 살랑살랑 웃소마
스치고, 어느덧 어린 새싹은
다 나뭇가지에 푸른 잎이 달
백화(百花)가 서로 다루어
하네, 모든 것이 계절(季節)
함께 희망과 즐거움에 빛나고
는 것 같습니다. 동무 여러
우리 모두 봄을 만나 명랑할시
일것 풍부하고 마음껏 뛰어
어린 시절을 즐기고, 끝없이
쳐진 넓은 항공(蒼空)을 원
이상을 품고 힘차게 달리십시
명랑 이것이야말로 좋은 건
요, 다시없는 세상의 보배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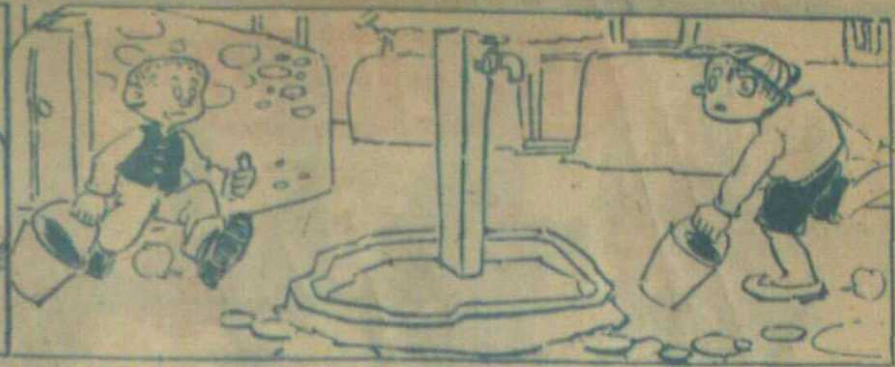
★다들 지난날의에서 보셨
만, 올해도 아현에서는 "어
날" 기념행사로, 비범한
분들의 주유 같은 작품과 등
모집합니다. 거짓없는 마음의
을 동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어 보내십시오.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무들의 문제가
집고 웃으며 불치를 앓았던
박사는, 다음 5월치부터
나오기로 되었습니다. 다시는
척척박사가 병이 안나도록
서 문제를 물드록. (박)

4232年 4月 1日 發行
소 학생 • 價 100 원
4월치 ☆제 66호
發行人 尹石重
發行人 尹石重
發行所 兒協
4230年 9月 30日 創刊 第24號
서울 區 龍津 2街 水新館
電話【光】 2973號-3192號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區 龍津 2街
서울신문社 印刷局
4230年 9月 31日 創刊 第14號

고림

이영춘



내가 먼칠
왔다

아니 어빠로 내
가 먼칠 왔어



3 이게 무슨
잔 소리야 저미 비켜
를 발을 걸어.

아 약
은 때렸지



4 아이쿠
아... 이녀석
죽어라



밖에
원 아단어나

앙 앙
올 어둡



6 저런 중한중한
싸움 하고있어



7 이놈들 의 용게를
지 않고 이게 무슨 짓
이나



8 오죽을 물을 맞어
받아만 말리겠어



9 그래도 싸우고 있
지 좀지 좋은 생각
이 있다



10 너희들 이그림
을 봐라



11 외 국 나라 어린이
들은 이렇게 의 용게
노는데



12 우리 나라 어린이는
싸움만 하거나



13 우리도 다른 나
라 동무들 에게
저서면 안
된다 이
재부터 잘
지내자

내가 잘못
했다

그림백과사전 ⑨

여러 가지 꽃 (설명 9 페이지에)



해바라기



비비추



물국화



다리아



국화



오랑캐꽃



장미



이 나뉘어 매지



무궁화



종내꽃



백합



얇은밤이꽃



유우릴

호파(玉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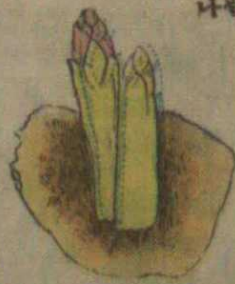
무궁화



만(蘭)



나팔꽃



아스파라가스



데이지

만홍화(緋紅花)



데이스
스틸